# 제10편 마을유래와 설화

**제1장** 마을유래
**제2장** 설 화

# 제1장 마을유래

## 제1절 남구 지역

### 1. 구룡포읍(　　)

#### 1) 구룡포리(　　)

전설에 의하면 신라 진흥왕 때 장기현령이 늦봄에 각 마을을 순시하다가 지금의 용주리를 지날 때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바다에서 용 10마리가 승천하다가 그 중 1마리가 떨어져 죽자 바닷물이 붉게 물들면서 폭풍우가 그친 일이 있는데 9마리의 용이 승천한 포구라 하여 구룡포라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용두산 아래에 깊은 소(沼가) 있었는데 이 소에 살던 아홉 마리의 용이 동해바다로 빠져나가면서 승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창주리(　　)·염창골(塩倉골)**

옛날 이 곳 해변(현재의 구룡포초등학교 자리)에 염전이 있었을 때 소금을 쌓아 두는 창고가 있었다 하여 염창골이라 하다가 그 뒤에 서늘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창주리라고 불러왔으며, 일명 서정리라고도 한다.

● **중앙리(中央里)·도산리(桃山里)**

구룡포리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앙리로 불려져 오고 있으며, 옛날 이 곳에 복숭아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도산리라고도 한다. 읍 승격시에 분리되어 현재의 구룡포 3리와 4리에 해당한다.

● **돌문(石門洞)**

구룡포2리와 3리 경계 지점에 옛날의 장기목장성의 출입문인 돌문(石門)이 있던 마을이라 하여 돌문 혹은 석문리라 불려 오고 있다. 돌문은 높이 11m, 폭 6m 정도의 자연석 바위였는데, 매암산을 중심으로 방목해 놓았던 말을 해질 무렵 몰이하여 이

문을 통과할 때 숫자를 세어 축사에 넣었다고 한다. 안전사고의 위험과 소재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1988년에 제거하였는데 그 돌 일부는 후동리 읍사무소 신청사 정원에 있다. 구룡포 3·4리에 해당한다.

● **장안리**(長安里)

현 구룡포 5리에 해당하는 마을로 1953년 동리 분할 때 지형이 길다고 하여 장(長)자를 따고, 마을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안(安)자를 따서 장안리라 이름지었다 한다. 마을 뒤편 언덕위에는 충혼탑, 충혼각, 용왕당, 구룡포개척자유공탑 등이 있는 구룡포공원이 있다.

● **용주리( ) · 사라끝**(沙羅末)

구룡포만의 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로, 옛날 이 곳에 모래밭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끝(沙羅末) 또는 사라리(士羅里)라 표기되어 왔으며, 마을 주민들이 풍어제를 올리기 위하여 인근 구룡포 5리 지역에 용왕당이라는 제당을 세우고 용주리라고 불렀는데, 마을 지형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국이라는 데서 붙인 이름이라고도 한다.

● **새골**(大新里)

현 구룡포7리에 해당하는 마을로 약 200년전 이 마을이 처음 생겼을 때 새로 생긴 마을이라 뜻에서 새골이라 했는데 1942년 읍 승격시에 마을을 크게 번창시킨다는 뜻에서 대신리(大新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 삼정리(三政里)

남쪽으로 구룡포리와 북쪽으로 석병리에 접해 있는 바닷가의 경치가 아름다운 마을로서 1리에 해당하는 범진과 2, 3리에 해당하는 삼정 등 2개의 자연부락을 관할하고 있다. 옛 목장성내에 목관공해유지(牧官公廨遺址)가 있다.

● **범진**(凡津)

원래 지대가 낮아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자주 범람한다 하여, 혹은 나루터가 넓다고 하여 범진이라 하였는데 '범늘'이라고도 한다.

● **삼정**(三政)

옛날에 3정승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혹은 삼정승을 지낸 분이 살았다 하며, 또 다른 일설에는 마을의 지세가 좋아 3정승이 날 것 같다고 하여 불려진 이름이라 한다.

● **관풍대**(觀風臺)

삼정 앞 바다에 있는 바위섬으로 소나무가 울창하고 경치가 아름다워 바람 맑고 달

밝은 밤이면 신선이 놀았다고 한다. 현재는 육교가 가설되어 통행이 자유로우며, 횟집이 성업 중이다.

### 3) 석병리(石屛里)

남쪽으로 삼정리와, 북쪽으로 대보면 강사리에 접해 있는 해안 마을로서 두일포와 석병 2개의 자연부락이 1리와 2리를 이루고 있다. 바닷가에 기암괴석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 **석병**(石屛)

마을을 끼고 있는 긴 해안선이 깎아 세운 듯한 암벽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 마치 병풍을 세워 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석병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마을 남쪽에는 길게 바다쪽으로 뻗은 송림을 배경으로 하여 1949년에 설립되었다가 1998년에 폐교된 석병초등학교터가 있다.

● **두일포**(斗日浦)

조선 숙종 때의 명유인 송시열 선생이 장기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 곳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는데 이 마을 뒷산의 모양이 마치 말(斗)을 엎어놓은 것 같고, 마을 앞의 나루터가 일(日)자형을 이루고 있다 하여 두일포라 부르게 했다 하며, 흔히 '들포'라고도 하는데 이는 '두일포'를 빨리 부를 때 '들포'라 한다.

### 4) 성동리(城洞里)

동해면 상정리 금오산에서 발원하여 중산리, 공당리를 거쳐 내려오는 하천인 창주리를 따라 동해안으로 통하는 도로를 끼고 남쪽의 뇌성산과 북쪽의 광정산사이의 긴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이다. 6개의 자연부락을 합쳐 성동리(城洞里)리라 하고 1리에는 달길(達吉), 태, 돌곡, 2리 어룡곡(魚龍谷), 윗잣두(上城), 3리 아랫잣두(下城)로 구분되어 있다.

● **달길**(達吉)

마을의 모든 일이 순조롭고 운수가 좋은 사람이 많이 나는 곳이란 뜻에서 달길이라 불려 왔다고도 하고, 골짜기가 깊어 달이 떠서 길게 비춰준다고 하여 '달기리'라 불러오던 것을 '達吉'이라 적었다고도 한다.

● **태**(太谷)

달길 입구에 있는 마을로 큰 계곡을 끼고 있다 하여 태곡(太谷) 또는 '태'라고 불려진다.

● **돌곡**

동해면 공당리로 넘어가는 마루에 위치하는 마을로 길가에 칠성방우라 불리는 고인돌이 있는데 여기에 연유한 이름이다.

● **어룡곡**(魚龍谷) · **웃잣두**(上城里)

처음에는 금당리라 했으나 후엔 버무달비 혹은 어용곡이라 불려 오고 있으며, 3리에 해당하는 아랫잣두(下城里) 위에 있다 하여 웃자두 혹은 상성리라고도 한다. 어용곡이란 이름은 옛날 이 곳에 있었던 천지못이라는 못 속의 물고기가 용으로 화하여 승천하면서 꼬리로 못둑을 쳐 못 밑의 마을이 물에 떠내려갔다는 데서 연유한다. 성동2리에서는 매년 음 정월 초에 제당목인 느티나무에 동제를 지낸다.

● **잣뒤 · 잣두**(城里) · **하성리**(下城里)

옛날에는 성(城)을 '잣'이라 하였던 바, 성(뇌산성) 뒤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잣뒤' 또는 '잣두'라 불려 왔는데 그 후 성동이란 이름이 생겨 널리 불려지게 되었다. 상성리 아래쪽에 있다하여 하성리라고도 하며 영천 황보씨의 집성촌으로 황보인을 기리는 광남서원이 있다. 뇌성산(212m)이 마을 남쪽에 위치하여 장기면 모포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 5) 구평리(邱坪里)

동해면 중산리와의 경계에 있는 달구벼슬산에서 발원되는 내를 따라 발달된 긴 골짜기와 동쪽 해안 선에 'ㄱ' 자로 길게 형성된 마을이다. 5개의 자연부락이 1리(새바우), 2리(邱坪, 학교마), 3리(都邱亭, 황사디미)로 나누어져 있다.

● **새바우**(島岩)

이 마을 주변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큰 바위가 많이 있어 뭇새들이 날아와 쉬었다 간다 하여 새바우, 조암 또는 새금돌이라 불러오고 있으며, 구평1리에 속한다. 1961년에 세워진 밀양박씨 문중의 구룡재(九龍齋)가 있다.

● **구평**(邱坪) · **구반**(龜盤)

옛날 이성지라는 풍수가 이곳을 지나 뇌성산 줄기가 뻗어내린 이 곳이 평평한 두들로 되어 있으므로 구평이라 했다 하는데, 거북의 등과 같은 형상이라 하여 구반이라고도 불려오고 있다. 효자 하영식(河永湜)의 효자각이 있다.

● **학교마**(學校村)

1949년에 설립된 구룡포남부초등학교(지금은 구룡포초등학교 구남분교장으로 격하)

가 있는 마을이라고 학교마 또는 학교촌이라 불러오고 있다. 동제는 제당목 느티나무에 매년 음 10월 6일 지내고 있다. 구평2리에 속한다.

● **도구정**(都邱亭)

구평3리의 중심 마을이다. 마을 뒤에 도봉사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혹은 마을의 모양이 독(항아리)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일설에는 깊은 골짜기에 위치하는 관계로 난리를 피해 온 양반들이 그들의 도성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도 한다.

● **황사디미**

마을 뒷산이 황새 모습이어서 명당터로 소문이 났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전해 오고 있다.

### 6) 장길리(長吉里)

남쪽으로는 구평리 북쪽으로는 하정리와 경계를 이루면서 바다에 접해 있는 마을로 장구목, 생길리 등 2개의 자연부락이 있다. 장구목, 생길리를 병합하여 장구목의 장(長)자와 생길리의 길(吉)자를 따서 장길리라 하였다.

● **장구목**

장길리에서 으뜸되는 자연부락으로 지형이 장구의 목처럼 생겼다. 동제는 동짓달 20일 소나무 숲속에 위치한 할배제당에서 '생길리'에 있는 할매를 모시고와 함께 지낸다.

● **생길리**(生吉里)

처음 이 마을에 들어온 주민들이 마을이 흥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 한다.

### 7) 하정리(河亭里)

구룡포읍 소재지 남쪽 약 10리 되는 곳에 해안선을 따라 길게 형성된 마을로 5개의 자연 부락이 1리(임물), 2리(하성, 태끼, 솔머리), 3리(당사포)로 구분되어 있다.

● **임물**(臨勿)

하정 1리이다. 1700년경 한씨와 편씨가 개척한 마을로, 예로부터 물과 인심이 좋고 많은 인물이 배출될 것 같다고 하여 임물이라 했다 한다. 소나무로 우거진 건네숲이 있다.

● **하성**(河城)

하정2리이다. 진주 하씨가 개척한 마을로 마을의 생긴 모습이 성을 쌓아 둔 것같이 생겼고, 하씨들이 많이 살므로 하성이라 불렀다 한다.

● **솔머리**(松亭)

마을의 생긴 모양이 쇠머리 같은 형상이며, 그 머리에 해당하는 바닷가 언덕 위에 큰 소나무 정자가 숲을 이루고 있다 하여 '솔머리'로 불러졌다 하며, 또 이 소나무 정자가 있는 언덕을 일송정이라 부르는 바, 여기에 연유하여 송정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 **태끼 · 토끼**

배가 닿은 포구에서부터 마을의 끝까지가 반달 형상을 하고 있는데다 마을 어귀의 지형이 돌출하여 토끼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토끼가 동해에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는 형국(玉兎望月形)이라 하여 태끼('토끼'의 방언)혹은 토끼라 불렀다 한다.

● **당사포**(堂士浦)

하정3리이다. 마을 뒤에서 보면 '堂'자 같고, 앞에서 보면 '士'자 같다고 하여 당사포라 했다 한다. 또 다른 일설로는 선비들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도 한다. 마을 뒤 언덕 위에는 경북대학교 수련원이 있다.

### 8) 병포리(柄浦里)

동해면 상정리에서 굴곡을 지나 구룡포읍으로 접어들면서 시작되는 좁고 긴 고디이골을 따라 뻗은 하천 하류에 우뚝 솟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구룡포만을 끼고 구룡포리와 마주 보는 곳에 위치하며, 북쪽의 대보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와 남쪽의 장기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의 길목이기도 하다. 자래골, 웃자래골, 남포리등 3개의 자연부락이 행정구역상 각각 1, 2, 3리로 구분되어 있다.

● **자래골**(柄里)

마을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의 형상이 자래('자라'의 방언)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병포리의 '병(柄)'은 자래골을 한자로 표기할 때 '자래'의 뜻을 '자루'로 잘못 해석하여 그렇게 적은 것이다.

● **웃자래골**(上柄)

자래골의 웃마을이라고하여 웃자래골 또는 상병이라 한다. 나곡서원이 있고, 고디이골 왼쪽 산기슭에는 1975년에 설립된 관음사란 절이 있으며, 마을 앞에는 200년생 느티나무 정자목이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 **남포리(　　) · 맞구룡포 · 피난민동네**

구룡포리 남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남포리라 불려 왔는데, 이곳에서 구룡포리가 마

주 보인다고 하여 맞구룡포라고도 불려진다. 또, 6.25사변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산다 하여 '피난민동네'라고도 한다. 진주 하씨가 개척한 마을이다.

### 9) 후동리(厚洞里)

동해면과의 경계를 이루는 헛재에서 발원되는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지는 길다란 계곡이 북쪽의 눌태리에서 흘러내리는 개울과 만나는 지점에서 대밭들을 형성하는데, 이 들 서북쪽에 있는 죽전산 아래의 개울을 사이에 두고 2개의 자연부락이 있으니 북쪽을 후리이라 하고 남쪽을 음달마라고 한다.

● **후동(厚洞)**

옛날부터 이 마을은 다른 어촌에 비해 농토가 많은 편이라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인심이 후한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구룡포와 포항간의 신작로인 31번 국도가 뚫리기 전만 하여도 이 마을 서쪽의 헛재를 넘어서 동해면 상정리를 거쳐 포항으로 왕래하던 구룡포 사람들이 날이 저물거나 굶주리면 이 동네에서 자고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여 후동이라 하였다 한다.

● **음달**

후리 남쪽 산기슭에 위치하여 옛날에는 음실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는데 산 밑의 응달에 위치하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러오고 있다. 불성사란 절이 있다.

### 10) 눌태리(訥台里)

구룡포리 서쪽, 병포리 북쪽의 긴 골짜기 속에 4개의 자연부락이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1리(큰동네, 탯골, 중태), 2리(藥田)로 구분되어 있다. 본래 장기군 외북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큰동네, 약전, 태곡, 중곡, 광정, 눌방을 병합하고 눌방과 태곡의 이름을 따서 눌태리라 하여 창주면에 편입되었다. 눌태란 옛날 이 곳에 살았던 충신 한 분의 언어가 눌언(訥言)이므로 그렇게 지어졌다고도 하고, 그 충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다고도 한다.

● **약전(　　) · 구장터 · 수페**

눌태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예로부터 이 마을에 약초를 많이 심었다고 해서 약전이라 불러 왔다. 한때 장기현 내북면 소재지였을 때 이곳에 시장이 있었다가 1914년 내북면에 외북면이 통합되면서 창주리로 옮겨 왔는데 이에 연유하여 구장터라고도 하며, 옛날에 이 마을에 큰 숲이 있었다고 하여 수페라고도 한다.

● **불미골 · 중태**(中台)

옛날 이 곳에 불미질('풀무질'의 방언)을 하던 곳이 있었다고 '불미골'이라 불려 오고 있으며, 눌태리의 중앙에 위치한 마을이라고도 하여 중태라고도 한다.

● **탯골**(台谷)

약전 북동쪽에 태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라 한다. 옛날에 안사묵(安思默)이 세운 始源堂('향악계종집' 이라고도 함) 이라는 정자가 있어 선비들이 공부하거나 노인들의 쉬는 곳으로 이용되었는데 8.15해방 이후 없어졌다.

● **큰동네**

읍소재지에 인접해 약전이 지금과 같이 번창하기 전에는 눌태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 이에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불미골, 탯골과 함께 순흥 안씨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1979년 이곳에 눌태저수지가 건설되고 또 이 저수지가 구룡포읍 상수도 수원지화되면서 안쪽 골짜기와의 통로가 폐쇄되었다.

## 2. 연일읍

### 1) 생지리(生旨里)

효자동을 지나 형산강을 가로지르는 연일대교를 건너면 바로 접하는 연일읍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들판 가운데 조금 높은 곳이 되므로 생마루라고 불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나리가 많이 생산되었다. 옛날에는 형산강 수로를 통하여 해산물이 모여들어 생미리(生味里)장터 또는 생미라 불렀다. 또 형산강 하구인 송정에서 어물들이 형산강 나루근처와 괴정리 시장이 설 때면 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곳에서 매매되었으므로 생거리(생걸리)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런 이름들이 변하여 생지리(生旨里)가 되었다.
고종 3년(1866년) 영일현청을 대잠리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다시 포항으로 옮겨갔다. 1866년 남순원(南順元) 현감 때 길이 7리, 너비 5리에 달하는 지역에 나무를 심어 바람과 모래를 막는 큰 숲을 이루어 생마루쑤, 또는 연일 신읍쑤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느티나무와 팽나무 7, 8그루만이 옛 영화를 전한다. 1906년 3월 개교한 연일초등학교는 포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학교이다. 연일초등학교의 동편에 영일현의 동헌이, 연일초등학교에 객사가, 경북자동차 운전학원 부근에 북문이 있었던 북문껄이, 그리고 읍내 4거리에는 각종 선정비 등이 많았다고 하여 비석껄과 소장터였던 소전거리와 마을 북쪽 형산강에 연일대교가 놓이기 전까지 강남북을 잇던 잠수교 등은 이름만 남고 흔적을 찾을 길 없다.

### 2) 괴정리(槐亭里)

생지리의 남서쪽 어미들 가운데 위치하며 택전 방면과 대송면으로 향하는 도로가 이곳에서 나누어지고 있으며, 포스코(POSCO) 연관단지로 들어가는 산업도로가 남쪽을 지나고 있다. 느티나무가 무성하여 그 숲을 정자로 삼았다 하여 괴정(槐亭)이라 하였는데 자연부락인 서문, 신흥을 병합하여 괴정리라 하였다.

● **서문 · 서문장터( ) · 서문장터서 · 문장터걸**

괴정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영일읍성의 서문이 있었던 곳이며, 인가가 많이 들어서자, 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또 이곳에는 도살장이 있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마을의 형상이 마치 범의 모습과 같아서 마을이 잘 되려면 소의 피를 뿌려야만 마을의 액운을 면한다고 하여 해마다 8월 보름이면 소를 잡아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빌었다고 한다.

● **새터 · 새태(新基 · 新舁)**

서문장터 마을의 인가가 점차 늘어나자, 서문장터의 동쪽에 새롭게 부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 3) 동문리(東門里)

영일읍성의 동문(東門)이 있었던 동문리는 형산과 제산이 만든 양산멱을 빠져 나온 형산강이 동해로 흘러들기 전, 그 남쪽에 넓게 펼친 어미들 중앙부에 위치하며 생지리, 괴정리, 중단리, 오천리에 둘러싸여 있다. 영춘동(永春洞)을 아울러 동문 또는 동문껄이라 한다. 이 마을 동북쪽에 1950년 9월 20일 개교한 영일중학교와 1978년 11월 8일에 설립된 영일고등학교가 있으며, 교정에는 현감 최희석(崔熹錫)과 민완덕(閔玩德)의 선정비가 있다.

### 4) 오천리(烏川里)

괴정리와 동문리의 동쪽, 포스코로 들어가는 길목에 남천을 따라 형성되어 마을이 오천리(烏川里)로 옛날 남천(오천껄, 南川 : 대송면 운제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서 대각리를 지나 송동리에 이르러 서남쪽에서 오는 홍계천을 합하여 남성리를 거쳐서 적계못과 어미들을 이루고, 연일읍 오천리 북쪽에서 형산강으로 들어가는 내)에 숲이 우거지고 까마귀가 많이 서식하였으므로 오내벌, 혹은 오천(烏川)이라고 불리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은 품질이 매우 좋아서 어미(御米)로 진상하였다고 하여

어미들이라고 하며, 또 연일의 옛 이름인 오량지현(烏良支縣)을 따서 오량벌(烏良伐)로 불리기도 한다. 가운데 마을이 오천리로 중심 마을이고, 그 남서쪽에 당수마을이 있고 오천리의 북쪽 즉 남천과 형산강이 맞닿는 곳에 북리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 **당수마을**(堂樹村・堂士里)

원오천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큰 회화나무 당수가 있어서 당수마을, 당수촌으로 불렀다.

● **북리**(北里)

원오천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 연일현 소재지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리라고 불리어졌으며, 옛날에는 형산강으로 나룻배가 드나들기도 했다고 한다.

### 5) 유강리(柳江里)

유동과 강양을 합쳐서 유강리(柳江里)로 된 이 마을은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서 7번국도를 따라 포항시로 넘어올 때, 형산(兄山)과 제산(弟山)이 만드는 양산멱(양산미기)을 지나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마을이 유강1리인 형강리(兄江里, 형산강을 따라 생겨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양산멱과 제산 아래를 지나는 동해남부선의 유강굴과 7번국도 유강터널이 있다)이고, 마을 앞 강가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개양골 앞 양지바른 마을이 개양리(행정구역이 흥해군에 속해 있을 때는 마을 앞 강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서 강양동(江楊洞)이라 불렀는데 연일읍으로 편입되면서 발음이 변하여 개양리로 많이 불리게 되었다)이다.

제산에서 자명천 건너 동편에 있는 노적봉이 서쪽으로 뻗어내려 용두산을 만들고 동쪽으로 포항시 효곡리에 닿게 된다. 남으로는 여러 개의 골짜기를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서쪽에서부터 오촛골, 채앙골, 원동골이다. 이 골짜기 아래에 용잠동(龍岑洞, 용잠이골 용두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는 형국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용잠이골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원동(院洞, 유강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을 뒷산 모양이 노적가리처럼 생겨서 왜적이 쳐들어 왔을 때 이엉을 둘러 산 전체를 군량미의 노적같이 보이도록 하였더니 왜적이 놀라 물러갔다고 한다. 그 후 이곳을 노적봉이 있는 노주골이라고 부르고, 옛날 서원이 있었다 하여 원골, 원동이라고도 불렀다), 원동에서 개남번데기를 너머로 유동(柳洞, 옛날 버드나무가 많아서 유동 또는 버드마라고 불렀다 함)이 있다. 형강리에 당수나무로 느티나무와 당집이 있어 지금도 동제를 지내고 있다. 형산강을 마주하여 우껫들과 사당들이 마을 남쪽에 펼쳐져 있고 그 앞으로 동해남부선 철도와 7번국도가 지난다.

### 6) 자명리(自明里)

유동리에서 형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자명천을 거슬러 북쪽에 있는 마을이 자명리(自明里)인데 자방리와 등명리를 합쳐서 자명리라고 한다. 제산의 동편에서 시작하여 효곡동과 경계를 이룬다. 자명천을 따라 안쪽 가장 큰 마을로 자방골재 밑에 남향으로 앉아 있는 마을이 1리인 자방리(自芳里. 옛날 중국의 방지라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다가 지형과 산세를 보고 후세에 스스로 아름다움이 있겠다고 한 예언에 따라 자방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 마을에는 자방골쑤(自芳藪)라는 울창한 숲속에 범이 많이 살아서 영일현감이 관군을 동원하여 호랑이를 잡았을 정도였다는데 서쪽에 옛날 개야지(개호주)가 살았다는 개야짓골이 있고, 마을 앞에는 자방골 숲의 흔적으로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몇 그루가 남아있다)이다. 남서쪽 제산 동편 산자락에 자리한 마을인 등명(燈明, 마을주위의 산세가 등잔을 걸어 놓은 형상이라 하여 등명이라 불렀다)이 2리이다. 서쪽에는 등명에서 경주시 유금리를 넘어가는 등명이재(燈明峴)가 있고, 동쪽 자방골에서 효곡동으로 넘는 자방골재(自芳谷峴)가 있어 옛길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등명 뒤에 있는 황물탕은 유황성분이 있어 피부병에 효험이 있는 약수탕이고 자방 앞에는 자방골 숲의 흔적으로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몇 그루가 남아있다.

### 7) 학전리(鶴田里)

도음산의 한 줄기가 남으로 내려오다가 만들어 놓은 자망태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흥해군에서 중앙으로 오르내리던 관로를 따라 자연부락들이 형성되었는데 북에서부터 송학이 있고, 1㎞쯤 남으로 내려가서 당수마을, 중간마을이 도로 양가에 마주 보고 있으며 다시 500m 가량 내려가서 가장 큰 마을인 칠전이 있다. 칠전마을 앞에는 앞들이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들이 있다. 동쪽으로 대이동과 동북쪽으로는 흥해읍 대련리와 접경을 이룬다.

● **송학(松鶴) · 놋점리(店里)**

옛날 이곳에는 송림이 울창하여 많은 학이 날아와 살았다고 하여 송학이라 불려졌다. 지금은 그 많았다던 소나무는 6.25전쟁과 산불로 거의 없어지고 제당 근방에 불과 몇 그루만 남아 있으며 학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뒷산 자망태산이 마치 학이 춤추는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그렇게 불렀다고도 한다.

● **당수마을(堂樹村)**

송학에서 1㎞쯤 남쪽으로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언덕위에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앞에 큰 소나무 당산목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당수나무가 살아 있다.

● **중간마을**

당수마을 남동쪽 언덕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못이었는데 홍수로 제방이 터져 못이 없어진 후, 그 자리에 한채 두채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마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간마을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송학과 칠전의 중간에 마을이 새로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 **칠전(七田・漆田)・돌개지니**

학전리에서 가장 큰 마을, 옛날 이 일대에는 옻나무가 많이 자생하였는데, 마치 밭에 씨를 뿌려 가꾼 듯이 무성하다 하여 칠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고름새기, 밋골, 붉은뎅이, 울골, 작은울골, 큰울골, 텃골의 일곱 골짜기에 많은 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칠전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지금도 주로 논농사를 짓고 있다. 마을서편에 인조봉인 '식은밥덩이산'이 있고, 골짜기에는 김해 김씨 문중에서 세운 돌비정(乭椑亭)과 군수선정비(郡守善政碑)가 있다.

### 8) 달전리(達田里)

남서쪽엔 제산과 이어지는 우룽방산이 있고, 남쪽엔 약수산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학전리와 달밭재(達田峴, 松鶴재, 鶴田峴)로 길게 접경을 이루고 있다.

달전지(達田池)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광방평, 달밭들, 쑥곡들, 절골들이 펼쳐져 있다. 이 들마다 자연부락인 국굴안, 달밭, 광방리가 형성되어 있다. 옛날엔 나라의 사창지로 비옥한 곡창지대였으며 지금도 벼농사가 잘 된다. 약수산은 채석장이 들어서고 난 뒤부터 물줄기가 끊어졌다고 한다. 본래 흥해읍 남면지역으로 달풀이 많으므로 달밭 또는 달전으로 불리어 오다가 1975년 10월 29일 달전면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연일읍에 편입되어있다.

● **국굴안・꾸꾸림**

옛날에는 숲이 울창하여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골짜기였으며, 마을 뒤편 벼랑에 호랑이 굴이라고 일컫는 굴이 있다 하여 '국굴안' 이라고 불렀다. 일제시대와 광복을 전후해서 무분별한 벌목으로 지금은 큰 나무가 거의 없고 옛 자취를 찾기 어렵다.

● **광방리(光方里)**

달전지 남동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옛날 기계유씨(兪氏)와 평해황씨(黃氏)가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는데, 임진왜란으로 온 마을이 불에 타서 살기가 어려워지자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성황당을 짓고 기도를 드렸고 신령의 도움으로 마을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하여 '구태'라고 부르다가 평해황씨들이 자손보존의 큰 덕을 입었다고 하여 광방리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로 넘어가는 유금재와 안계리 섬동으로 넘어가는 섬동재가 있다. 마을 북쪽 도음산(禱陰山) 기슭에 경주 양동민속마을 입향조(入鄕祖)이며 조선 세조 때 문신인 이조참판 양민공((襄敏公) 손소(孫昭)(1443~1484)의 묘와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세운 상달암(上達菴)이 있고 마을 남쪽 달전지 옆에 양민공의 아들 우재 손중돈(愚齋 孫仲暾)의 묘와 재실 건물인 하학재(下學齋)가 있다. 양민공의 묘 북쪽 기슭에 조선조 성리학자로 동방 오현(五賢)중의 한 분인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과 그의 아버지 이번(李蕃), 동생 이언괄(李彦适), 아들 이응인(李應仁)의 묘와 묘소를 수호하는 재사로 달전재사(達田齋舍)가 있다. 그리고 못 건너 동쪽 산 절벽에 천연기념물 415호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가 있다.

### 9) 중명리(中明里)

형산의 동편 산자락에서부터 동남쪽의 길게 뻗은 오두봉과 오족곡 사이에 위치한다. 우안양수장에서 시작되는 물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남쪽에 중명골(중메골)이 있고, 그 아래로 아래부조가 형성되어 있다. 오족골에는 원골이란 큰 마을이 자리하며 마을 어귀엔 300~400년생 회화나무 노거수림이 남아 있어 마을의 역사가 깊음을 말해 준다.

● **중명골 · 중메골**(中明谷)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연오랑 세오녀가 왜국으로 떠나 버리자 신라 땅에는 해와 달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왜국에 연오랑과 세오녀를 찾아갔던 사신이 대신 가져온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올렸더니 해와 달이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이때 광명이 비치는 한가운데에 위치하였다 하여 중명(中明)이라고 불렀다 한다. 또 마을 중간에 산이 있어 중메골이라고도 한다. 중메골 가운데를 흐르는 작은 보가 경주시와 포항시의 경계이며, 이 경계로 한 마을이 행정구역을 달리하게 되었다.

● **아래부조**(下扶助)

강동면 부조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아래부조라 부르게 되었다. 형산강수로를 통하여 해산물의 집산지였던 동해안 3대시장의 하나였다. 부조 장시(場市)와 관련된 현감 조동훈(趙東勳)과 남순원(南順元)의 선정비가 있다.

● **원리**(院里)

고려말 공민왕 때 문정공 설곡 정사도(鄭思道) 선생이 이곳에 서원을 세워 많은 유생들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현재 마을 뒤쪽에 '고려문정공설곡정선생유허비'(高麗文貞

公雪谷鄭先生遺虛碑)라는 비석은 있으나 서원의 위치나 흔적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서원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원골, 원동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마을 앞에 있는 원동숲(院洞藪, 中明藪)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등 노거수 수 십그루가 울창하고 제당(祭堂)나무인 큰 느티나무에는 매년 마을 동제를 지내고 있다.

### 10) 중단리(中丹里)

택전리에서 중명리로 향하는 도로의 북쪽에 위치한 못골산 아래에 자연부락들이 형성되어 있다. 동쪽에서부터 못골, 새각단, 중단마을이 있으며, 중단마을 서쪽엔 야트막한 언덕이 있고 아맛골이라는 골짜기도 있다. 마을 앞에는 넓은 청심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로 야게보(洑)가 있다.

● **중달(中丹)**

중단리의 중심 마을이다. 들 가운데에 달처럼 생긴 작은 산이 있다 하여 중달, 중단이라고 불리웠다 하기도 하며, 또 옛날 이곳에 유명한 참외밭이 있었는데 그 참외 맛이 일품이라서 '外明靑, 中心丹'이라고 말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도 한다.

● **새각단 · 새마(新村)**

못골 남동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각단, 신촌이라고 부른다. 약 100여 년 전에 생겨난 마을로 마을 앞에는 넓은 들이 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 **못골(池谷)**

새각단과 비슷한 시기인 약 100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 앞의 들에 물을 대기 위하여 골짜기 밑에 200여 평 규모의 못을 막았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11) 택전리(宅田里)

우복리, 택전리, 중명리에 걸쳐 옥녀를 닮아 수려한 옥녀봉(224m)의 북쪽 줄기가 내려오면서 여러 개의 골짜기와 낮은 산지인 소용산과 일리산, 파랑산을 형성하였는데 이들 산과 골짜기 아래에 마을이 위치해 있다. 마을 북동쪽만 틔어있고 나머지는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 싸여 있다.

● **택전1리(宅前1里)**

댁골 앞에 인가가 많이 들어서서 마을이 형성되자 댁골 앞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택전이라고 불렀다. 최초로 생겨난 마을로 남원 양씨들이 대잠동에서 이주하여 개척한 마을이다.

● **택골 · 대꼴**(竹谷 · 宅谷 · 宅里)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대골, 죽곡으로 칭하여왔다는 설이 있고, 신라 때 이곳에 높은 벼슬아치들이 대궐같은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택곡, 택동이라 하였다 설이 있다.

● **댁골쑤**(宅前藪)

대골 마을 입구에 수백년 된 고목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동북쪽에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 이곳에는 여름이면 숲의 그늘에 마을 전체가 휴식처로 지나가는 행인들의 쉬어가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곳을 대골숲이라 불러왔다.

● **세비장골 · 세면골**(西面谷)

조선시대 서면 사무소가 있었다고 하여 서면골이라고 한다. 또 대골의 뒤쪽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맑고 깨끗하여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즐겁게 음식을 먹고 놀던 곳이며 그 뒤에는 물에 항아리를 담아 씻던 곳이라 세비장골로 불러왔다고 한다.

### 12) 인주리(紉珠里)

적계산의 북서쪽 줄기가 만드는 계곡사이 사이에 조박골, 대박골, 사심골, 납딱골, 새낙골, 큰골, 작은골의 일곱 개 자연부락으로 마을을 이룬다. 동쪽에 있는 적계못이 마을 북쪽에 펼쳐진 어미들 일부를 적셔준다. 적계산과 적계못을 경계로 대송면 남성리와 맞닿아 있다. 영일군 서면 지역으로서 마을 앞 옥녀봉(225m) 산봉우리 다섯 개가 마치 구슬을 꿴 형국이라 하여 인주리라 한다.

● **조박골**(照璞谷)

조박지(적계못) 뒤쪽 골짜기에 위치하며 인주리에서 가장 으뜸되는 마을로 지형이 조바기(조바위)처럼 생겨서, 또 옛날부터 조를 많이 심어서, 또는 조씨가 처음 입향하여 조박골로 불러왔다고 한다. 옛날 찾아오는 손님을 싫어한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대박골, 지형이 사슴을 닮아서 사슴골(사심골), 대박골 옆에 넓은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고 납딱골, 마을 모양이 새의 부리와 같이 뾰죽하여 새낙골, 큰 골짜기에 큰골, 작은 골짜기에 작은골, 등 재미있는 이름들이 전한다.

### 13) 우복리(牛伏里)

옥녀봉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연일읍의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과 남쪽은 대송면, 북쪽은 인주리, 서쪽은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와 접해 있다. 영일군 서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사가곡, 홍사를 합병하여 우복이라 하였다

● **우복**(牛伏・愚伏・愚老・牛老)

우복이나 우노란 지명은 마을의 지형이 소가 엎드려 있는 형상을 닮았다는 데서 연유되었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조선조 단종사화 때 장낙원(掌樂院), 주부를 지낸 김예중(金禮仲)이라는 선비가 이곳에 숨어들어와 살면서 스스로 낮추어 말하여 우복, 우노골이라 이름하였는데, 훗날에 오기하여 우복(牛伏)이라 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도 한다.

● **게실・쌀개실**(沙加谷)

연일읍의 행정동 중 가장 주민의 수가 적은 마을이다. 마을의 모양이 디딜방아의 쌀개와 비슷하다고 하여 살게실(쌀개실)이라고 불린다. 마을 서쪽 길가에 2개의 농짝처럼 생긴 농바위가 있고, 옥녀봉 서쪽에 여덟 봉우리로 된 팔형산(八兄山)과 봉우리 사이 다섯 웅덩이 오천지(五天池)가 있으며, 동남쪽 여당골・여단골(厲檀谷)에는 조선시대 영일현의 여제단(厲祭檀, 전염병으로 죽은 귀신을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었다고 한다.

## 3. 오천읍

### 1) 원리(院里)

옛 현의 소재지였다고 하여 고현(古縣)이라 불렀으며 고을원이 살며 선정하였다고 하여 원리(院里)라고도 하며, 오천서원(烏川書院)이 소재 하고 있어 원리라 불렀다고 전한다. 현재는 원동지구 개발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 **상원・하원**(下院)

고을 원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위쪽에 위치한 마을을 상원(上院)아래에 위치한 마을을 하원(下院)이라고 한다.

● **도둑골・도덕골**(道德谷)

대송면으로 넘어가는 서원재와 마을 중간지점의 작은 골짜기에 옛 부터 안강시장에 다니는 상인들과 일반인들의 금품을 노리는 도둑이 자주 나타났다고 하여 도둑골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 2) 문덕리(文德里)

개척 당시 마을 촌장이 주민들에게 글을 숭상하고 덕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이 되도록 바라는 뜻에서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현재는 신 문덕지구로 개발되어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 **문덕리**

마을이 처음 개척되던 당시 중심지였으며 자연부락 단위로 분할되었다가 1917년 병합될 시 구분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한다.

● **신기(神基) · 새터 · 샛터**

1910년경 새로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신기 또는 새터라고 불렀다고 한다.

● **천마산(天馬山)**

동편산 이름이 말의 형국을 띠고 있어 천마산이라 하여 마을 명을 함께 불렀다고 한다.

● **굴산평(窟山坪) · 굴산들**

굴산사지 앞 넓은 들을 옛 절 이름을 따서 굴산들 굴산평이라 불렀다고 한다..

### 3) 항사리(恒沙里)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맑은 물이 항상 흐르며, 마을 옆으로 길게 흐르는 천에 깨끗한 모래가 산자수려함을 나타내어 항사라 불렀다고 한다.

● **내항사(內恒沙) · 안항사 · 황대골**

2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주민들은 골짜기 안쪽 마을을 내항사, 안항사라고 하며, 마을 중앙 서남쪽에 위치한 높은 산이 황새가 북쪽으로 향하여 앉아 물고기를 쪼아 먹는 형세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외항사(外恒沙) · 바깥항사**

항사리에서 경주로 넘어가는 큰 골짜기 바깥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 **원터골 · 원터 · 원태 · 원기**

오천읍에서 경주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민가가 없어 행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고을원님이 숙박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집을 원집이라 하였다.

### 4) 진전리(陳田里)

오천읍 남단 경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1500년경 함씨와 백씨가 개척하였으나, 곧 떠나고 살지 않았으므로 인근 마을사람들이 묵밭이라 불러 오던 중 임진왜란 때 박씨가 재개척하여 진전이라 불렀다고 한다.

● **음지(陰地) 마을**

마을 동편 두리봉(380M)의 준령이 아침 햇빛을 가려 빛을 오래 보지 못한다고 하여 음지마을이라 전한다.

● **양지마을**

음지마을 서편 따뜻한 양지 밝은 마을이라 하여 양지마을이라 불렸으며 서북쪽이 산으로 둘러 싸여 겨울에도 항상 따뜻한 마을이다.

### 5) 갈평리(葛坪里)

조선 명종 초 1550년경 개척당시 칡넝쿨이 무성하여 갈림 또는 갈밭이라고 하였다. 명종 즉위 1600년경 성진이라는 풍수가 마을 산세를 보고 칡넝쿨 같이 얽혔다고 하여 갈평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해마다 마을에서는 강씨란 분을 모시고 동제를 올리고 있다.

● **도리마을 · 도리말 · 도라동 · 회동(廻洞) · 웃마을**

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자연부락으로 하천이 한 굽이 감아 돌아 형성된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이석골 · 쉰골**

숫돌을 생산하던 탄광이며 진상품으로 더욱 유명하다.

### 6) 문충리(文忠里)

신라 초 근오지현에 속한 마을로 개척되어 고려 말에 이곳에 많은 선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사거리(士居里), 사거리(師居里) 또는 삭거리(索居里)로 불러지다 조선 세종 시(1430년경) 포은선생의 시호를 마을 명으로 정하여 선생의 탄생지를 알리고 마을 주민 모두가 숭배하였다고 하며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 **궁(宮) 마을**

왕궁에 출입한 선비(포은선생)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여 궁마을 이라 하였고 지세가 궁을 지을 터라고 하며 큰집(포은선생 생가)이 있었다고 하여 궁마을 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 **선래점(仙來店) · 선래짐 · 신광(新光)**

신선들이 쉬어가는 장소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신라 고승 원효대사. 혜공선사. 자장율사들이 기림사 석남사를 거쳐 오어사에 오가며 쉬어가던 장소라 하여 선래점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신광봉**(新光峯)

까치고개 뒤 정상을 말하며 아침에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비추는 장소이다. 일월지와 관련하여 빛이 맨 먼저 비추었다고 전한다.

● **작현**(鵲峴) · **까치고개**

선래점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칭하며 산 고개 모양이 까치가 앉아 있는 모양새라 하여 까치고개라 부른다.

● **문충골**(文忠谷)

마을 서편에서 골짜기로 깊은 계곡을 말하며 문충리 지명과 동시에 포은선생이 살던 터 골짜기를 문충골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상마암**(上馬岩)

문충골 입구에 위치한 바위로 포은선생이 외출할 때 이 바위를 딛고 말에 올랐다고 전하며 길가에 묻혀 있다.

### 7) 용산리(龍山里)

조선 영조 당시(1730) 수원 김씨가 처음으로 정착한 마을이라 전하며, 산 지형의 형세가 용(龍)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국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행정구역 통폐합시(1914) 오천면 소재지가 소재한 마을이다.

● **국들**

야생 들국화가 많았다고 하며 서편 산이 반원을 그리듯 반월형이라 하여 곡들이라 부르다가 음이 변음 되어 국들이라고 한다.

● **월골**(月谷) · **다래골** · **다라골**

마을 동편 산 형상이 초생달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월곡, 다래골, 다라골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달이 뜨면 마을 주위를 가장 먼저 비추었다고 하여 월골 이라고 한다.

● **응봉**(鷹峯) · **매봉**

산봉산의 북쪽 봉우리로 산 모양이 매가 앉은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8) 광명리(光明里)

신라시대 근오지현(芹烏支縣)에 속한 마을로 개척하여 현재 마을이 위치한 장소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일월지(日月池)에 해가 솟아날 때 맨 먼저 비추었다 하여 광명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 **윗광명 · 아랫광명**

천신의 혜택을 받은 마을이라 하여 재앙을 피하는 땅이라고 전하며 광명의 마을은 큰 재앙이 있어도 화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이 위쪽에 위치한 마을을 윗광명, 아랫쪽에 위치한 마을 아랫광명이라고 한다.

● **쌍지내골 · 쌍지네미골 · 쌍공골**(双蚣谷)

수백 년 묵은 지네 한 쌍이 골짜기에 있었다고 전하며 사람들이 무서워 산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 9) 세계리(世界里)

신라시대 근오지현(芹烏支縣)에 속한 마을로써 오천읍 동편에 위치하여 장기면과 경계를 이룬다. 연오랑 세오녀가 살았던 마을이라고 전하며 온 세상 빛이 환하게 비추었다고 하여 세계리라 불렀다고 전한다. 마을 중심부에 오천재래시장은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 **당(堂)마을 · 당평(塘坪) · 안마을 · 당옆**

신라 아달라왕 4년(157년) 연오랑 세오녀 관련 천제당이 있던 마을이라 하며 "못둑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영일현 읍지(1929년)에 소개하고 있으며 당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등위 · 신흥리 · 혜곡동**(蕙谷洞)

새롭게 생성된 마을이라 하여 신흥리, 중흥리보다 언덕 위에 위치한다고 하여 등위라 한다. 또 예로부터 골짜기에 감초가 많이 생산 되어 혜곡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 **당평**(當坪) **· 당들 · 당옆들**

제당이 위치한 들녘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10) 용덕리(龍德里)

신라시대 효소왕(700년경) 때 개척되었다고 하며 용(龍)이 승천하면서 마을사람들이 덕(德)을 입었다 하여 용덕리라 붙여진 지명이다. 한때는 오천읍의 중심 주거지로 활발하였다.

● **마줏골 · 마적골**

일월지(日月池)에 인접한 마을이며 일월, 청림, 구정, 용덕이 연결되는 골짜기로 마적들이 살던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1940년 일본군이 군사기지로 조성하였고 광복 후 미군이 주둔하였다가 1953년 해병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 **오천포도원**(烏川葡萄園)

초대 오천면장(진성련) 재임당시 5만 평의 국유지를 개간하여 청포도나무를 재배하였고 1916년에는 12만 평을 매입 후 개간(1917)하여 1920년 완료하였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와인(포도주)으로 품질인정을 받았다. 년 생산량 4천~천두, 종사자 250명, 상표는 마쯔다(三輪)였고 관리는 신한공사(동척회사)에서 맡았다. 해방 후 농림부가 관리하다가 6.25이후 국회원이 관리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생산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영일만, 오천포도원, 오천비행장을 3대 자랑거리로 삼았다 전한다.

● **일월지**(日月池)

연오랑 세오녀가 제사를 올리던 장소로 유명하다. 그리고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제를 올리자 해가 비추었다고 하여 지역의 지명도 또한 해를 상징하는 마을이 많다.
(光明里・新光峯)

### 11) 구정리(舊政里)

오천읍 서북쪽에 위치하며 한때는 과수원 동네라고 하였다. 옛 정승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정승이란 포은 정몽주 선생을 지칭하며 포은선생 유허비와 유허비각이 있다.

● **석보평**(石洑坪)・**석보들**・**돌보들**・**구정들**

오천읍을 가로 지르는 냉천의 용수를 끌어들여 경작하는 들이라는 지명으로 1670년경 개간하였으며 도수로에는 흙이 거의 없고 자갈과 돌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여 보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 **오천 비행장**

1941년에 착공하여 1944년에 준공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확장으로 현재에 이른다. 1941~1944년(4년간) 동원된 노동인구는 마을 당 5명 이상 한 사람이 15일간 계속해서 강제 징용되어 노동을 하였고, 다른 도시에서 징용된 사람은 45일간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다고 한다. 당시 40~45세 건장한 남자는 대부분 강제 징용되었다고 전한다.

## 4. 대송면

### 1) 공수리(公須里)

산세가 매우 수려하여 선녀들이 놀았다고 전해지는 선녀봉반형(仙女奉盤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는 선녀봉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들을 따라가며 동에서 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자연부락인 과다리, 큰동네, 새각단이 차례로 있으며 들판은 수리시설이 잘 되어 벼농사 짓기에 좋다. 마을 뒷산이 '公'자 형국이라고 해서 공수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시대 공수전(公須田)이 있었다고 하며 공수곡이라 불렀다.

● **과다리 · 광어(廣魚)다리**

옛날 이 마을 앞에는 강이 있었고, 다리가 있었는데 홍수가 나면 광어가 다리 밑까지 올라왔다고 하여 광어다리라 하였는데, 마을이름도 따라서 광어다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 **우방골(遇芳谷)**

공수못이 있고 공수리 동쪽에는 바다골 · 해평(海坪)이라는 들이 있는데, 옛날엔 이곳까지 바다였다고 한다.

### 2) 남성리(南城里)

넓은 중보들과 좌비봉을 바라보고 있는 마을로 성좌동과 남성으로 형성되었다.

● **성좌동(聖佐洞)**

남성북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옛날 향교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며 성인을 안좌시켰다는 뜻에서 성좌동이라 불렀다. 그 후 향교는 고종 4년(1867년)에 효자동으로 옮겨 갔다.

● **남성(南城)**

영일읍성(迎日邑城)을 남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의 자연적인 지형은 남쪽으로는 우복동 계곡에서 시내가 흘러 동쪽으로 흘러가고, 북쪽은 적계못이 있으며, 동쪽에는 트인 들판과 대각에서 흘러오는 남천이 있다.

이 성은 해발 80m 남짓한 구릉지에 산의 능선을 따라 성벽을 만들었으며, 우리지역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현종 2년(1011)에 토성으로 축조하였다가 붕괴되자 공양왕 2년 (1390)에 돌로 고쳐 쌓고 감무 겸 만호를, 조선 태종 때에는 병마사 진을 두었고, 세종 때 석성으로 개축을 하면서 높이 12척, 둘레 2,949척에 동, 남, 북쪽에 문루를 설치하였으며 야산으로 연결되는 평지읍성의 보완책으로 적

대, 옹성, 해자 등의 시설을 고루 갖춘 확연한 규모로 축조되었다. 영조 23년(1747)에 고읍리(포항시 장흥동)로 옮겨 갈 때까지 736년간 영일현의 소재지였다. 읍이 옮겨간 후 황폐화 되어 지금은 석축이 완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북쪽 500m 정도이다.

성내의 가장 중심부에는 ≪삼국사기≫의 편수관이었으며 고려 추밀원 지주사를 지냈던 영일 정씨 시조 형양공 정습명(鄭襲明)의 묘단(墓壇)과 제례를 올리는 남성제실이 남아있다. 영일읍성을 옮길 당시의 경상감사는 영조 때 영의정까지 지냈고 문장과 명필로 유명한 지수재 유척기(兪拓基)였으며 영일 정씨의 외손이기도 하였다. 이런 연유로 형양공의 묘단비문를 유척기가 직접 짓고 쓰게 되어 지금도 칼칼한 해서의 묘미를 느끼게 하며 이곳의 묘터는 재물과 자손 번성을 상징하는 지네의 형국으로 먹이가 되는 지렁이까지 갖춘 명당 중에 명당이라 풍수하는 이들의 발길이 잦다.

또 묘단비 앞의 투구 쓴 무인상과 남성제의 앙증맞은 거북모양 주춧돌 등은 덤으로 맛 볼 수 있는 재미라 하겠다. 영일읍성 내에서 발견되는 신라토기들은 영일읍성의 역사를 원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립 경주박물관에 소장된 '말 그림이 있는 굽달린 목긴 항아리'(馬刻文 有臺長頸壺)로 우리 지역의 역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토기에 말이 그려진 것 자체만으로도 희귀한데 줄무늬가 새겨진 다섯 마리의 말 중에 가운데 한 말의 등 위에 태양을 상징하는 동심원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 지역의 성읍국가였던 근기국의 존재와 『迎日』의 명칭에 대한 고찰까지 생각하게 한다.

### 3) 산여리(山余里)

포항 시내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형산강 너머 장벽처럼 우람하게 산맥들이 달리는 중 문득 우뚝 솟은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운제산(雲梯山, 478m), 혹은 대왕산(大王山)이라 불리는 포항 지방의 진산(鎭山, 마을을 지키고 대표하는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멀리서도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수려 장엄한 산세의 산)이다.

#### ● 산여리(山余里) · 산나미

운제산 허리에 형성된 마을로 이사구짐이, 새사구짐이, 시리봉을 합하여 대송면에 편입되었는데 면소재지에서 남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산중마을로 몇 가구 살지 않은 한적한 마을이다.

북쪽으로 대각리와, 서쪽으로 경주시 천북면과, 남쪽으로 경주시 덕동 암곡리와, 동쪽으로 오천읍 항사리와 경계를 접한다. 산골 오지 마을이라 골짜기와 고개(재)와 봉우리가 많이 있다. 암자가 있었던 암잣골, 시루처럼 생긴 시리봉(시루봉, 甑峰), 길마

처럼 생긴 질매재(鞍峴), 논 여섯 마지기 배미가 있는 엿마지기골, 오어사로 넘어가는 오어재(吾魚峴), 가시밭이 많은 음시밭골(掩柴田谷), 장닭(수탉)이 우는 형국의 명당이 있는 장딸네미골, 황장골, 장기박골, 옷빡꾸미골, 연시박골, 새골, 빡꿈골, 엉정재 등이 그 예이다.

● **운제산**(雲梯山・雲帝山)

신라 2대 남해차차웅의 왕비인 운제(雲帝, 또는 雲梯)부인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운제부인이 이 산의 수호신 또는 산신격인 성모(聖母)로서 오랫동안 존숭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근래에 까지 꼭대기에 4단제실의 성모당(聖母堂)이 남아 있었다는 촌로의 말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 이와같이 운제성모(雲帝聖母)로 인하여, 또는 자장, 혜공, 원효 대사가 오어사에 주석하면서 이 산, 저 산에 있는 암자 사이를 구름사다리(雲梯)로 다녔다는 데서 운제산이라 하였고 지역민에 의해 기자・기우(祈子・祈雨)의 토속신앙과 결부된 샤머니즘의 대상으로서 다시 대왕산으로 전이되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 **도요지**(陶窯址)

운제산 남쪽 계곡에 산재해 있는 자기를 구워 내는 가마터(사깃굴, 사기가마)로 10여군데 확인되었다. 이는 주로 이사구지미와 새사구지미, 시루봉 등지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이사구지미(이시구지미, 已沙器店)는 산여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조선시대의 사기점이 있었다는데서 유래하였고 새사구지미(새시구지미, 新沙器店)는 이시구지미 남서쪽 골짜기에 새로 이사구지미 보다 큰 사기점이 옮겨와 생겼다는 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이들 지명에서 보더라도 오래 전부터 가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왕산에서 나는 토산물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질 좋은 숫돌(礪石)이 양산되어 조정에 공물로 바쳐졌고 조선 중기에는 은광이 발견되어 銀店이 성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길 없다. 그러나 1992년 6월에 풍기 출신 POSCO 직원이 바로 이 산에서 산삼 11뿌리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대왕산의 신성성을 한층 더 높인다 하겠다.

### 4) 대각리(大覺里)

대각사(大覺寺)가 있었으므로 대각, 또는 때꼴이라 하는 대각리는 1리에 안때골, 밖대각, 대밭밑, 건덕이, 2리에 우석골, 하박골, 재밑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다.

● **안때골・안대각**

안대각이란 발음이 변하여 안대골, 안때골로 불리운다 한다. 마을 북서쪽에 망월봉이 있어 달맞이를 하였으며 그 골에 대각사란 절이 있었다 한다.

● **밖대각 · 본대각**

대각동의 바깥쪽에 위치하며 원래 대각동을 말한다. 마을 어귀에 영일만온천이 개발되어 있고, 그 동편에 당산숲이 있다.

● **천석골**

재밑마을 가는 길에 있던 천석꾼이 살았다는 마을이라 전해진다.

● **하박골 · 화부(花富)골**

하씨와 박씨가 집성 세거했다하여 하박골, 꽃이 아름다운 곳에 부자가 살았다 하여 화부골이라 불렀다 한다.

● **재밑**

오어재 아래에 형성된 마을이며 수원김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 **대밭밑**

건덕과 밖대각 중간 대나무 밭이 있는 곳으로 7~8호 사는 마을이다.

● **건덕(建德)**

옛날 주막이 있었다는 2~3호 사는 마을이다. 이런 마을이 닥나무밭이 있었던 딱밭골(楮田谷), 도토리나무가 많은 꿀밤골, 인공으로 만든 산(造山)이 있는 조산두들과 같은 아기자기한 지명과 어우러져있다.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온정재, 왕어골, 가마골에서 온수가 솟았다는 전설이 있었으며, 1988년 (주)영일만 온천에서 개발하여 대규모 온천휴양지로 조성하고 있다.

### 5) 송동리(松洞里)

본래 영일군 남면의 지역으로서 송골, 송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송동, 하송동, 오동을 병합하여 송동리라 하여 대송면에 편입되었고 교통요지이다. 또 1994년에 제내리에서 이전한 대송면사무소가 있다.

● **상송(上松) 마을**

송림 위쪽에 위치한다고 그렇게 불리어졌는데 500여 년 전 안동권씨가 입향하여 100여 세대로 번창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호구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곡부 공씨가 새로 입향하여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 **푸심골 · 부송골(富松谷)**

진주 강씨에 의해 개척된 마을로 상송 남동쪽 골짜기에 있다.

● **서당골**(書堂谷)
푸심골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옛날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 **오장골 · 오정동**(五政洞)
하송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하송**(下松)**마을**
지금부터 200여 년 전 순흥 안씨, 오천 정씨, 진주 강씨 세 성씨로 마을이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소나무가 많아서 하송이라고 불렀다. 옛날에는 아름드리 노송으로 이루어진 송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노송림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6) 옥명리(玉明里)

대송면 송동리와 호동과 접해있는 마을이다. 자연부락은 마을 가운데 들판의 양편에 형성되어 있는데 호동에서 용무더미라고 불리는 낮은 산지를 지나면서 옥명, 양계골, 바람내미, 수각동이 작은 골짜기와 논배미에 차례로 자리잡고 있다. 1988년 포스코 제3연관단지가 조성되면서 옥명리는 제3연관단지에 편입되어 마을 전체가 철거되었다.

● **양계골 · 양가골 · 양가곡**(楊哥谷)
옥명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 마을에 양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양가골, 양가곡이라 불렀는데 그 발음이 차츰 변하여 지금은 양계골로 되었다.

● **바람내미**
양계골 동쪽 고개 위에 있는 마을이다. 항상 바람이 세차게 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었다고 한다. 바람이 끊이지 않으므로 인근 마을 어린이들이 모여 연을 많이 날리며 특히,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달맞이를 하기도 하였다.

● **수각동**(水覺洞)
물맛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에도 이곳에는 약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약수를 마시러 모여 들었다고 한다. 이곳의 지형이 뿔같이 생겼다고 하여 수각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바람배미 위에 산막이 있었던 산막골, 돌이 많아서 돌트미, 옥명못의 용이 죽어서 묻은 용무더미(용무덤), 용무드미에 있는 우거진 소나무 숲인 용무드미쑤(藪), 용무더미 위에 있는 버든골, 버든골 위에 소가 누워있는 모습의 소고기재(소곡재 · 서우재), 장자가 살았다는 장자골, 비옥한 논이 있던 고래, 그리고 덩등배미, 시부골, 약쑥내기, 탯골, 가람줏골, 흐부랑골 등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맑으며 정감어린 지명들을 간직한 마을이다.

### 7) 장동리(長洞里)

마을 이름 그대로 공수리에서 서남쪽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면서 길게 뻗쳐 있는 마을이다. 가장 먼저 만나는 마을이 사정동이고 서쪽으로 더 가면 골짜기가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은 원장동, 도장골이 있고 남쪽은 갓골, 당수마을, 절골이 형성되어 있다.

● **사정동**(射亭洞)

등장가리산 남쪽 들인 섬배미 가운데 장동의 첫 마을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현룡(金見龍, 1550~1620)이 이곳에서 거병하여 병사들에게 궁술을 훈련시킨 장소였다고 하여 사정동이라 불렀다. 수원김씨에 의하여 개척된 마을로 서쪽에는 예전에 말을 먹였다고 하는 마구평(馬廐坪)이 있고, 북쪽에는 섬배미라는 넓은 들이 있다. 또, 조선시대 놋쇠그릇을 만들었다는 퉁점이 곁에 있고, 김현룡장군이 만년에 기거하며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하던 곳에 그 공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월동재(月洞齋)가 있다. 월동재의 서쪽 들판 건너 마을인 공수리 우봉골 능선에 김현룡의 묘소가 있다.

● **원장동**(元長洞)

사정동 서쪽에 위치하며 나주 정씨에 의해 개척된 장동의 중심 마을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의 남쪽에는 미질이라는 들이 있고, 서남쪽으로 돌아가면서 물방앗골, 배락더미라는 골짜기가 있다.

● **도장골 · 도장곡**(道臟谷)

원장동 서북쪽에 위치하며 마을의 앞이 산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잘 보이지 않아 도장(창고) 안에 감춰진 것 같다고 하여 도장골이라고 부른다.

● **갓골 · 관동**(冠洞)

원장동 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300여 년 전에 여강 이씨인 이준노(李俊老)라는 선비가 정착하여 이룬 마을이다. 지형이 갓 모양이라 하여 갓골, 혹은 관동이라 불렀다. 마을의 동쪽에는 논골이라는 들이 있으며, 북쪽에는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는 용두산이 있고, 동쪽에는 옛날 원당이 있었다고 전해오는 원당곡이 있다.

● **당숫골 · 당수마을 · 당수동**(堂樹洞)

도장골에서 흘러오는 시냇물이 마을 앞으로 흐르고 있는데 바로 이 시냇가에 당수나무가 무성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그 나무들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대신 김해김씨의 재실로 충효재(忠孝齋)가 있다.

● **절골 · 사곡**(寺谷)

마을 뒷편 골짜기에 절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는데 마을 북쪽에는 뻐때말랭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정상에 측량푯대가 박혀 있다. 안동 권씨의 정자인 사산정(四山亭)이 있다.

### 8) 제내리(提內里)

원래 영일군 남면 지역으로 못 안쪽에 위치하므로 못안 또는 제내라 하였는데 발음이 차츰 변하여 모산, 지산, 지산동이라고 하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신천동과 오정동 일부를 합하여 제내리라 해서 대송면에 편입되었다.

대송면을 가로지르며 형산강으로 흘러드는 남천의 동남쪽에 포스코건설로 인하여 새롭게 조성된 마을로 신기(新基), 새각단(新村)이 있었는데 1968년 포스코와 연관공업단지가 건설되면서 1970년 신촌, 신천 등 제내동의 대부분 마을이 그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철거민 15호가 살기 시작한 신기동에 새로운 주택지를 조성하여 많은 철거민과 공단 근로자들이 들어와 지금의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행정동인 제내 1·2·3·4리로 나누어 살고 있다. 모산못(池山池)은 제내동 남쪽에 있는데 약 200년 전에 팠다.

### 9) 홍계리(洪溪里)

본래 영일군 남면 지역으로서 홈으로 냇물을 이끌어 논에 대므로 홈골, 또는 명곡이라 하다가 변하여 홍계가 되었다. 자연부락으로는 창오봉의 북쪽에 위치한 덕동과 매봉재 밑의 홍계가 있다.

● **매봉리(鷹峰里) · 홍계(洪溪)**

마을 뒷쪽에 응봉령이라는 높은 고개가 있는데  바로 이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응봉리라고 부른다. 또, 마을 앞으로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배를 댈 정도로 넓었다고 한다. 그래서 넓은 계곡이란 뜻으로 홍계라고 부른다.

● **덕골 · 덕동(德洞)**

월성김씨에 의하여 개척된 마을로서 홍계 북동쪽에 있다. 용암사, 홍계폭포, 장군암(將軍岩), 용마암(龍馬岩) 등 암벽과 송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신라 때 화랑들이 심신을 연마하던 곳이라고도 한다.

덕동 입구의 큰 골짜기인 서당골 위에는 부처방우, 불암(佛岩, 높이 약 300척쯤 되는 바위가 병풍처럼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굴이 있어 신라 때 금부처를 모셔 두었더니 일본인들이 훔쳐가 버렸다고 한다)이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다.

## 5. 동해면(東海面)

### 1) 도구리(都邱里)

동해면의 서쪽에 위치하여 청림동과 경계를 접하며, 남쪽에 해병부대가 있다. 1리와 2리로 나뉘어져 있는 도구, 2리인 우물재, 3리인 농장(農場)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최근 포항시세의 확장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 **도구(都邱)**

면소재지로 파출소, 우체국, 단위농협, 시장, 동해초등학교, 포항동해중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 등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다. 현재 1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흔히 큰동네라고 부르며, 공공기관들은 2리에 분포되어있다. 동해초등학교의 선돌(立石)과 예비군훈련장 뒤의 고분군이 이 지역의 역사를 대변해 주고 있으며, 시장터 위쪽에는 연오랑과 세오녀를 모신 일월사당이 있다. 매년 4월초 큰동네에서는 현씨 터주 신위를 모시고 아름드리 해송 세그루가 있는 제당에서 동제를 지낸다.

● **우물재**

마을 곳곳에 땅을 파면 시원한 물이 솟아난다고 하여 불려지게 된 이름이며, 천호라는 우물물은 특히 유명하다.

● **농장(農場)**

1929년 일본인 중야륭(中野隆)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부터 대량의 포도 묘목을 가지고와 대규모의 포도농장을 만들었는데 이에 연유하여 불려지게 된 이름이다. 이육사(李陸史)의 시 '청포도'가 바로 이 농장과 영일만의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씌어졌다고 한다.

### 2) 약전리(藥田里)

현 도구해수욕장인 어릿불 동쪽에 위치하여 석리, 상정리, 도구리, 신정리등과 경계를 접하는 마을로 1·2리에 해당하는 약전과 3리의 굼바우 등 2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부락을 합쳐 약전리라 하였다.

● **약전(藥田)**

조선시대 석곡 이규준선생이 석동에서 석곡서숙을 열어 한의학을 가르치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약초를 재배하던 밭이 많아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한약방도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약초도, 한약방도 사라져 버렸다. 면소재지에 가깝고, 포항시세가 확장함에 따라 최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크게 변모하고 있다.

● **굼바우**

이 마을 동북쪽 모래사장에 굼바우라는 구멍 뚫린 큰 바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연유한 명칭이다. 또, 옛날 어떤 장수가 이 바위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아홉조각으로 갈라졌다 하여 구암(九岩)이라고도 하며, 위쪽을 윗굼바우, 아래쪽을 아랫굼바우라 한다. 매년 2월 10일 마을 제당에서 동제를 지낸다.

### 3) 신정리(新亭里)

조항산(247m) 서쪽에 위치하며 석리, 약전리, 도구리, 금광리 등과 경계를 접하는 마을로 1리인 염장, 새정자, 2리인 중리 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 **염장(鹽場)**

옛날 이곳에 소금시장이 있었다고 하여 불려지게 된 명칭으로, 흔히 염재이라고도 하는데, 소나무가 우거진 염장숲 뒤의 우물을 경계로 윗염장과 아랫염장으로 나눈다. 주변에 수 기의 고인돌(支石墓)이 있고, 1963년 신정리 산 19번지 개간시의 다수의 토기가 발견된 바 있다.

● **새정자(新亭)**

염장에 있던 회나무 정자가 없어지고 새로 이곳에 소나무 정자가 새로 생겼다 하여 불려진 이름으로 10여호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 **중리(中里)**

신정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처음 영일정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하며, 남쪽의 금광, 동쪽의 염장, 북쪽의 약전이 세 부락의 중앙에 위치하여 중리라 불렀다. 매년 10월 10일 소나무 당목이 있는 제당에서 동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토지구획사업으로 마을이 없어졌다.

### 4) 금광리(金光里)

동해면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오천읍 세계리, 장기면 죽정리, 정천리와 경계를 접하는 마을로 1리인 정천(井泉), 가는 골(細谷), 2리인 등넘, 퉁지미 등 4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몽운사, 관음사 등의 절이 있고, 관음사 동쪽 약 1Km 지점에서는 나뭇잎 화석과 규화목(硅化木)이 발견되고 있으며, 마을 주변에 수 기의 고인돌이 있어 마을의 역사를 말해 준다.

● **정천(井泉)**

마을 한 가운데에 기도하면 아들을 얻는다고 전해지는 정천이란 샘에 유래한 명칭이다.

● **가는골**(細谷)

가늘고 긴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위쪽에 거북돌이란 바위가 있어 그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예로부터 짝불알을 씻으면 효험이 있다고 전해온다.

● **등넘**

산등성이 너머에 위치하며, 5호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이다.

● **퉁지미**

장기면과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며, 마을의 일부는 행정구역상 장기면 정천리(井泉里)에 속한다. 옛날에 구리를 녹이던 퉁점(銅店)이 있었다 하여 불려지게 된 이름이다. 갈탄과 백토가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광산업체인 금강광산이 채광작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폐광된 상태이다.

### 5) 석리(石里)

조항산(247m) 북쪽, 돼지산 남쪽의 포항~구룡포 간 국도를 끼고 있는 마을로 안독골과 바깥독골 2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돝산(돼지산) 밑에 있으므로 돝골(猪洞)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음이 변하여 독골, 돌골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석동이라 하였으며 예로부터 마을을 감싸고 있는 돼지산 때문에 돼지 사육을 금기시하여 왔다 한다.

● **바깥독골**

서쪽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김씨가 처음 개척한 마을이다.

● **안독골**

동쪽 골짜기 안쪽에 위치해 있고, 방씨가 처음 개척한 마을이다. 이 마을 동쪽 히날재부근에는 흔히 백토라 불리는 벤토나이트(Bentonite)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어 몇몇 광산업체가 들어와 채광작업을 하였으나 지금은 폐광된 상태다. 입암리와 경계를 이루는 사화랑산(150m)에는 옛 사화랑산 봉수대의 유적이있으며, 조항산 산정에는 1971년 설치된 방송국 중계소가 있다.

### 6) 임곡리(林谷里)

돼지산 북쪽 바닷가에 위치하는 마을로 입암리, 석리, 약전리와 경계를 접하며, 1리인 숲실, 2리인 조사리(造沙里) 등 2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에 임곡포란 지명으로 나오는 이 곳에는 조선시대에 해군기지인 영일진이 있었다고 한다.

● **숲실**(林谷)

숲이 넓게 우거져 음지에 고기가 많이 모여들므로 숲이 우거져 있어 불리게 된 명칭이다. 임곡교회가 있고, 기자신앙을 간직한 애기바우가 애박골에 있다. 매년 3월 10일 마을 제당에서 동제를 지낸다.

● **조사리**(造沙里)

해풍으로 인해 군데군데 모래가 쌓여 모래산을 이루는 곳이라는 뜻에서 불려진 이름이다. 해안에 모래사장이 발달되어 있어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찾아 든다.

### 7) 입암리(立岩里)

예로부터 와룡득구지형(臥龍得球之形)이라하여 명당으로 전하는 금오산(231m) 서북쪽 해안에 형성된 마을로, 1리인 힌디기와 2리인 선바우 등 2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빙혈이라는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오는 바위구멍이 있다.

● **선바우**(立岩)

마을 앞 해안에 선바우라 불리는 높이 6m 가량의 우뚝 선 바위에 연유한 이름이다. 평택임씨가 처음 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매년 9월 10일 마을 제당에서 동제를 지낸다.

● **힌디기**

옛날 노씨가 처음 정착하여 살 때 좀더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흥덕이라 하였는데, 음이 변하여 힌덕, 힌디기로 불려졌다 한다. 매년 10월 2일 폭나무 당목에 동제를 지낸다.

### 8) 마산리(馬山里)

금오산(231m)과 공개산(241m) 사이에 있는 술미산을 비롯한 작은 산들을 배경으로 하여 바닷가에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뒤쪽에 있는 산의 형상이 머리를 육지쪽으로 두고 꼬리를 바다쪽으로 하여 뛰어가는 말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말미 또는 마산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산에다 말을 놓아 먹였으므로 그렇게 불렀다고도 하는데, 마을 뒷산에는 말을 먹였다는 목장터가 있다. 하선대(下仙臺)는 동해용왕이 7월 7석날 용궁에서 나와 천상(天上)의 옥황상제의 윤허(允許)를 얻어 선녀를 이 하선대에 초청하고 가무를 즐기며 남성인 용신과 여성인 선녀가 서로 만나 즐겼다고 전하며 동민들은 풍어제와 기우제를 이 하선대에서 지내왔던 곳이다. 매년 9월 9일 마을 제당에서 원씨 터주신위와 월성이씨 골목 신위를 모시고 동제를 지낸다.

### 9) 흥환리(興串里)

공개산(241m)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발원되어 영일만으로 흐르는 하천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마을로 1리인 배일, 피고지, 주막(酒幕), 연화(蓮花), 2리인 진골(長谷) 장태 등 5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룡포읍 석문동에서 시작하여 눌태리를 거쳐 이 마을까지 연결된 옛 장기목장성의 흔적이 말봉재(140m) 일원에 남아 있다. 흥환의 '환(串)'자가 옛날에는 익힐 관(串), 꿰미 천(串), 땅이름 곶(串), 또는 꼬지 환(串)으로도 사용되었으나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옥편에는 '꼬지 환(串)'으로는 표기되지 않고 있다.

● **배일(興洞)**

마을 앞바다에 밸(불가사리)이 많이 난다 하여 불려지게 된 이름이며, 흔히 아랫배일이라고 불리는 피고지 위쪽에 있으므로 웃배일이라고도 한다.

● **피고지(稷串)**

옛날 이 지역에 피(稷)를 많이 재배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목장(牧場)에서 뛰쳐나온 말을 골목으로 몰아넣어 붙잡은 곳이라 하여 말골목이라고도 하며, 윗배일 아랫쪽에 위치한다하여 아랫배일 또는 아랫각단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안곶으로도 불렀었다. 매년 9월 9일 마을 제당에서 동제를 지낸다.

● **주막(酒幕)**

옛날 행인이 묵어가던 주막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며, 지형이 연꽃이 피어 있는 형상과 닮았다하여 연화(蓮花)라고도 한다. 흥환초등학교 분교가 이 마을에 있었으며, 매년 12월에 마을 제당에서 동제를 지낸다.

● **진골(長谷)**

긴 골짜기에 위치한다 하여 불려지게 된 이름이며, 아랫진골이라고도 한다. 매년 삼월 삼짇날 고씨 할배 신위를 모시고 동제를 지낸다.

● **장태**

옛날 장이 섰던 곳이라 하여 불려진 명칭이다. 매년 삼월 삼짇날 마을 제당에서 골목할매를 모시고 동제를 모신다.

### 10) 중흥리(中興里)

흥환리에서 남쪽으로 약1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다. 본래 장기군(長鬐郡) 내북면(內北面) 지역으로서 마을 뒷산이 배를 엎어 놓은 모양과 같다고 하여,

혹은 옛날부터 이 지역에 왜구의 침입이 잦아 일본을 배척한다는 뜻에서 배일골 또는 배일곡(排日谷)이라 불러 왔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일본인들이 이름이 좋지 않다고 중흥리라 고쳐 영일군 창주면이 구룡포읍으로 승격될 때 동해면(東海面)에 귀속 시켰다. 마을 앞 화전들에 수 기의 고인돌이 있어 이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으며, 남쪽 골짜기에 진불사가 있다. 매년 11월 마을 어귀에 있는 제당에서 김해김씨 터주할배와 월성이씨 골목할배를 모시고 동제를 지낸다.

### 11) 발산리(發山里)

흥환리 북쪽, 대보면 대동배리 남쪽에 자리 잡은 어촌마을로 1리인 발산과 2리인 여사등 2개의 자연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해안가에 목장성과 관계가 있는 감목관과 흥인군, 그리고 울목 김부찰 노연 영세불망비가 있다.

● **발산(發山)**

조선시대 세워진 흥인군 공덕비에는 발산(鉢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형이 바랑처럼 생겼다 하여 바랑골 또는 발미골이라 불린다라고 볼 수 있으나, 언제부터 '쏠발(發)'자로 바뀌어 쓰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남동쪽 흥환리와의 경계지점에 있는 봉우재에는 옛 발산봉수대 터가 있고, 동쪽 골짜기에는 발산못이 있다. 100여년 역사의 발산교회가 있으며, 이 마을 주민의 약 80%가 이 교회 신자이다.

● **여사(余士)**

신라가 망한 후 망국의 한을 품은 선비가 모여들어 살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선비 행세를 하며 살았다고 하여 불려지게 된 이름이다. 마을 입구에 장군바위가선돌 모양으로 서있으며, 대보면 강사리와 경계를 이루는 봉오재(180m)에는 옛 사지봉수대 터가 있다.

### 12) 상정리(上政里)

금오산(231m) 남쪽에 위치하여 히날재, 운장산(200m) 에 둘러싸인 마을로 1리인 안골, 대박, 히날재, 2리인 새암리, 거무골, 3리인 구정 등 6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 **안골(內谷)**

골짜기 안쪽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마을회관 앞에 느티나무 정자가 한 그루가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매년 10월초에 당목에 동제를 지낸다.

● **대밭**

마을 뒤 야산에 대나무가 많이 불리게 된 이름이며, 흔히 대박골이라고도 한다.

● **히날재**(白日嶺)

신라 때 해가 빛을 잃었다가 다시 밝아졌다는 전설을 간직한 히날재(흰날재, 히나리재)에 유래한 이름이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 피를 많이 흘렸다는 또 다른 전설에 따라 피날재로 불리기도 한다. 히날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는 흔히 백토(白土)라고 불리는 벤토나이트((Bentonite)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어 몇몇 광산업체가 채광작업을 하고 있다.

● **새암**

물이 맑고 차서 여름철에 마시면 생기가 솟는다는 샘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상양리라고도 한다. 매년 12월 3일 느티나무 당목이 있는 제당에서 동제를 지낸다.

● **거무골**

금오산 남동쪽 산골짜기에 위치하는 마을로, 산중턱에 검은 빛이 나는 돌이 많아 흔히 거무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 이름에 연유한 명칭이다. 이 마을 동북쪽에는 현재의 국도가 뚫리기 전 포항~구룡포 간 주 통로였던 헛재가 있다.

● **구정**(九政)

옛날 이씨(李氏) 성을 가진 한 정승의 후손이 마을을 개척한 후로 구성(九姓)이 모여 살았는데, 모두가 정승의 후손인을 자처한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이 마을 남쪽에 옛날에 장이 섰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장터가 있다.

### 13) 중산리(中山里)

운장산(200m) 남쪽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공당리, 북쪽으로 상정리와 경계를 접하며,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구석보를 경계로 하여 형성된 모산과 중양 2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남쪽 들판에 3기의 고인돌이 마을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 **중양**(中陽)

달성 서씨가 처음 개척하였으며, 상정리의 상양리와 공당리의 하수리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마을이라 하여 불려진 이름이다. 중양서원이 있다.

● **모산**(茅山)

이 마을에 있는 못 둑의 잔디가 고운 모산못이라는 못 이름에 연유한 명칭이며, 못 안쪽에 위치한다 하여 못안이라고도 부른다. 해주오씨가 처음 개척하였으며, 서쪽 관곡산 기슭에는 신라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석관묘가 도굴된 상태로 남아 있다. 중산 고분군이 있다.

### 14) 공당리(孔堂里)

동해면 최남단에 위치하며 구룡포읍 성동리, 장기면 죽정리와 경계를 접하는 마을로 1리인 공당, 2리인 도래말, 새태말, 안말골, 3리인 뱃돌골, 하수리 등 6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에 5~6기의 지석묘가 있어 마을의 오랜 역사를 말해 주고 있으며, 남쪽에 옛 내북면의 이름을 딴 내북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교되어 수련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귀에는 옛 숲의 흔적으로 300여년생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세 그루의 노거수가 남아 있다.

● **공당**(孔堂)

조선 선조 때의 학자 정응성(鄭應星)이 임난을 피하여 이곳에 와 공맹의 학문을 가르치던 곳이라 하여, 혹은 지형이 구멍의 형상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라 한다. 오천 정씨의 세거지로 정사하(鄭師夏)와 정동환(鄭東煥)을 추모하는 북계제사가 있으며 매년 11월초에 마을 앞 제당에서 부부 동신과 종 등 3신위를 모시고 동제를 지낸다.

● **도래말**(廻洞)

마을의 형세가 본동인 공당을 돌아 위치한다고 하여 불려지게 된 이름이며 창녕 이씨의 세거지이다.

● **새태말**

본동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새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마을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다.

● **안골말**

안쪽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이다. 2리에서는 매년 정월에 팽나무와 돌감나무가 있는 제당에서 동제를 지낸다.

● **뱃돌골**(舟石谷)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에 큰 바위가 있어 배 모양을 연상케 하므로 그렇게 불러 왔으며, 개울의 위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상수리라 부르기도 한다. 선암사 절이 있다.

● **하수리**(下水里)

개울의 아래쪽에 위치하므로 아르무자골 또는 수척리라고도 불러오고 있다.

## 6. 장기면(長鬐面)

### 1) 읍내리(邑內里)

장기면의 진산인 동악산(252m)에서 동으로 내민 산등성이에 옛 장기읍성이 있고 이 성안 마을을 성내라 한다. 성내의 서편을 현 서촌리에, 동편을 읍내리에 속하게 하였다. 이 읍성의 남쪽으로 뻗은 산을 용마산이라 하고, 이 산 아래 마을을 용전이라 한다. 용전 동편에 죽성과 하성이 있으며, 죽성과 용전 사이에 서원마을이 있다.

● **성내(城內) · 성안마을**

옛 장기읍성을 동서로 양분하여 서편을 서촌리에, 동편을 읍내리에 편입시켰다. 이 지방 사람들은 동부 서부라 부르지 않고 성안 또는 성내라 부른다.

● **용전(龍田)**

읍성의 남쪽이며 이 마을의 뒷산이 용마산이므로 이에 유래하여 용전이라 하였다. 죽성에 이어 대나무가 많으므로 죽전이라고도 부르나 이곳 주민들은 용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 **서원마을**

죽성과 용전 사이에 우암 송시열 선생을 기리는 죽림서원(竹林書院)을 창립하자(1707), 이곳을 서원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서원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이 줄어 서원말, 서말이라고도 부른다.

● **죽성(竹城)**

읍성 남쪽 아래로 대나무가 마치 성곽을 이루어 놓은 듯이 많이 있어서 죽성이라 한다.

● **하성(下城) · 구장터**

장기읍성 동문을 따라 내려오면 현 장기면사무소가 있는 곳과 장기초등학교 입구에 마을이 있는데, 읍성의 아랫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하성이라 한다. 이 하성 지역에 성내의 저자거리(장기읍성 북문쪽, 현 서촌 1리 마을 회관 앞)에 있었던 시장이 옮겨지면서 장터가 되었는데, 오늘날 장기농협에서 장기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여기 있던 시장을 1948년에 임중 2리로 옮겨 새장터라 부르게 되자, 읍내리에 있었던 옛 시장터를 구장터라 부르고 있다.

### 2) 마현리(馬峴里)

장기면의 진산인 동악산의 한 지맥이 동주하다가 옥녀봉을 이루는데 이 옥녀봉 동남향에 형성된 마을이다. 장기천은 서에서 동으로 흘러 동해에 흐른다. 장기천 건너에

는 현내들이 있다. 장기란 읍호도 마산촌이란 명칭에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송시열(宋時烈)선생이 유배되어 살던 집주인 오도전(吳道全)이라는 이가 썼다는 글에 "邑號之鬐字村名之馬字似有意味命"이라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 **명장**(明章)

고려시대부터 향교가 위치한 곳으로 문장가가 많이 나왔다하여 명장이라 불리었으며, 이 명장을 상명, 중명, 하명으로 나누었다. 상명에 해당된다.

● **교동**(校洞)

조선조 태조 5년(1396) 장기향교를 창건하자 상명을 명장이라 하고, 중명, 하명을 합하여 향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교동이라 했다.

● **새마을동내**

골짜기에 살던 사람들이 도로변에 살게 되어 새로 생긴 동내라 하여 새마을동내라 한다.

● **구석곡**(龜石谷)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구석곡에는 송시열 선생이 심었다는 은행나무와 송우암 선생 사적비 및 정다산 선생 사적비가 있다.

### 3) 금곡리(琴谷里)

수양산(181m) 남쪽 골을 따라 기밀(今日)들을 이루고, 그 옆으로 상금, 중금, 하금마을이 형성돼 있다. 동으로는 영암리에 서로는 마현리에 접하고 남으로 장기천(용암천)이 닿는 곳에 용암마을이 있다. 하금 서쪽 부침재(望佛嶺)가 마치 용과 같이 길게 뻗어 있어서 용암이라고 하며, 전설이 깃든 할배 바위, 할매 바위가 서로 등지고 있다.

● **상금**(上琴), **중금**(中琴), **하금**(下琴)

금곡리가 있는 골짜기 상부로부터 생긴 마을을 상금, 다음은 중금, 맨 아래 쪽에는 하금이라 나누어 부른다. 하금(下琴)에는 허진수를 제향하는 금산서원과 삼효각, 죽와정 등이 있다.

● **기밀**(今日)

조선 명종 때의 선비 허진수(許進壽)라는 분이 이곳에 기거하면서 동해 일출을 보며 거문고를 탓다고 하여 불리어진 이름이다.

● **용암**(龍岩)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용암이라 한다.

### 4) 영암리(靈岩里)

수양산 지맥이 남으로 흐르는 동편 기슭에 동해와 접하면서 수용포, 갓바우(冠岩)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서로는 금곡리와 남으로는 신창리에, 북으로는 대진리와 경계를 접한다.

● **갓바우**(冠岩)

영암리의 중심마을로 북쪽의 수용포를 합하여 영암리라 하며 이 곳은 삿갓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관암이라 하며, 이 관암은 신령스러운 바위라하여 동명을 영암리라 하였다. 관암을 분동하여 영암 1, 2리라 한다.

● **수용포**(水用浦)

수영포라고도 한다. 모포에 수군만호진이 있을 때 수영포라는 초진이 있었던 곳이라 전해진다. 영암3리이다. 동제는 음력 6월 초순에 골목할매(소나무를 꺾어다 만듦)에게 지내며, 3년마다 풍어제를 지낸다.

### 5) 신창리(新倉里)

장기천 하류의 넓은 현내평야(1,100ha) 남쪽 산기슭에 신양, 독산이 해풍을 막아주는 해안에 죽하,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대양과 창암이 있다.

● **신양**(新陽)

원래 이 지역이 바다였을 때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 하여 뱃머리, 배물, 볏말 등으로 불리며 이 곳이 들판으로 바뀌자, 새로 생긴 들이란 뜻에서 신평 또는 신양으로 부르게 되었다.

● **죽하**(竹下)

옛날 이 마을에 무늬가 고운 담뱃대 재료로 쓰이던 소상반죽(瀟湘班竹) 이라는 대나무가 있었다하여 붙여진 마을이다.

● **대양리**(大陽里)

동해바다와 접해있는 마을로 아침에 큰 태양을 맞이하는 곳이라 하여 불린 명칭이며 매년 3월에 동제를 지낸다.

● **창암**(倉岩)・**창바우**

이 마을 앞 바다에 곳집같이 생긴 바위에 연유하여 불리어진 마을이다. 영천서 건너왔다는 전설을 간직한 독산이 있다.

### 6) 양포리(良浦里)

경주시와의 경계를 이루는 감재산(柿嶺山, 286m)에서 발원된 수성천이 동북방향으로 흘러 양포만에 이르는데, 이 만을 끼고 발달한 마을이다.

● **치진리**(治津里)

옛날부터 송어가 많이 잡혀 송어구미방(松魚九味坊)이라 부르던 것을 1873년 이후로 마을 이름을 확정하면서 제일 먼저 생긴 마을이며, 중심 마을 이였으므로 치진리라 하였다. 구룡포 수협 장기지점 건물이 있는 지역이다.

● **토계**(土溪)

양포교회가 있는 마을로 수성천의 하류로서 토사가 쌓여 이룩된 마을이라 하여 토계라 한다.

● **갈밭각단**

양포교회에서 수성천 건너편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옛날 이 곳에서 갈대가 많이 우거진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 **막각단**

수성천과 동해바다가 마주치는 남쪽에 고기잡이에 필요한 어막이 늘어져 있어서 막각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한다.

● **양월리**(良月里)

양포 서편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달이 뜨면 제일 먼저 달빛이 비치는 곳이라 하여 양월이라 한다. 양월리를 양포 1리로, 갈밭각단과 막각단을 합하여 2리로, 토계를 3리로, 치진리를 4리로 한때 부르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5개 자연 부락을 양포리로 통합되었다.

### 7) 계원리(溪院里)

감재산(柿嶺山)의 한 지맥이 동으로 뻗쳐 연화산을 이루는 데 연화산 동쪽 산기슭과 동해에 임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황계리와 원당리를 병합하여 계원리라 하였다.

● **황계리**(黃溪里)

지금의 계원 1리로 동해바다로 돌출한 곳에 형성된 마을이다. 당수구미라고도 한다.

● **소봉대**(小峰臺)

황계리에서 해안을 따라 남으로 내려가면 육지의 돌출부가 있다.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옛 부터 시인 묵객들이 묵고 갔다는 얘기가 있다. 복길봉수대의 전초 역할을 하였다 하여 소봉대라고 한다.

● **원당**(院堂)
일명 대원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곳은 옛날 평안원(平安院)이 있던 곳이라 하여 대원 또는 원당이라 한다.

### 8) 두원리(斗院里)

감재산의 일 지맥이 동으로 뻗쳐 연화산, 또는 연대산을 이루어 경주시와 포항시를 가르는 경계를 형성한다. 장기면의 최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원하, 지경, 두내 등 세 개의 자연부락이 있다.

● **원하**(院下)
계원리에 잇었던 옛 평안원 아랫(남쪽)마을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와전되어 오날개, 원화(原花)라고도 한다. 아주 옛날 해일이 있었을 때 연대산에서 2사람만이 살아 남았다는 전설이 있다.

● **두내**(斗內)
두 개의 내가 만나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혹은 지형이 둥글고 오목하여 마치 말(斗) 모양 같다고 하여 두내라 부른다 한다.

● **지경**(地境)
경주시와의 경계되는 마을이라 하여 지경이라 부르게 되었다. 골짜기의 돌들이 붉은 빛을 띠므로 적석, 또는 석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 9) 수성리(水城里)

감재산에서 발원하여 수성천이 북동쪽으로 흘러 양포만에 이르는 수성천 좌우로 감재(柿嶺・柿洞), 소매기, 원방, 널목, 성황 마을을 이루고 있다.

● **소매기**
감재와 원방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작은(小) 매기(두들)라는 뜻이다.

● **원방**(元坊)
수성에서 맨 처음(元) 생긴 마을(坊)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널목**

지금의 수성리 중심마을이며 작은 매기에 비하여 넓고 큰 매기(목)라는 듯으로 널목이라 한다. 옛 지명에 판공(板孔)이라고도 한다.

● **성황**(城隍)

임중리와 수성리를 잇는 고갯마루에 산재해 있는 마을로 옛날 이곳에 성황당이 있어서 불리어진 이름이다.

### 10) 임중리(林中里)

영취산 남동기슭으로 십리장림 임중숲이 이어지고, 동북쪽에는 현내들이 장기천을 사이에 두고 형성되어 있다. 임중숲 남쪽을 숲안이라 하여 현재의 임중 1리이고 북쪽으로 장기천의 하천변을 개간하여 장터를 만들었다 하여 새장터(新市場)라 하며 임중 2리라 한다.

● **숲안**(林中)

원래 숲안이라 하였으며 왜미기, 덕림, 남아, 수영골, 와촌, 평림, 숲걸(숲거리)의 마을을 임동내 칠동이라 했다. 지금 역골이라 부르는 곳은 옛 봉산역(峰山驛)이 있었던 곳이다. 이 역은 경주의 조양역과 연일의 대송역과 연결되었다.

● **새장터**

1948년 장기초등학교 입구에 있었던 시장을 이곳으로 옮겨 '새장터'라 하며 현재는 임중 2리이다. 고려 충선왕시 오도안찰사를 역임한 채헌(蔡軒) 오방우(吳邦佑) 공을 제향 하는 덕림서원과 덕계 나주 임재화(林再華) 공의 유허비각인 덕미각(德美閣)과 효자 김사민(金士敏)을 기리는 정효각 및 의사 만취 정치익(鄭致翼)의 추모비가 있다.

### 11) 방산리(芳山里)

삼봉산 일 지맥이 남동으로 내려오다 묘봉산에 이르고, 묘봉산 마주보는 동쪽에 망해산(205m)이 있다. 묘봉산 아래에 괴정이 있고, 망해산 아래에 평동이 있다. 두 마을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만나는 곳에 육송정이 있고, 육송정 동남에 팔어실이 있고, 팔어실에서 방일천 건너편 동악산 아래에 거산이 있다. 거산, 팔어실, 육송정을 방산 1리라 하고 평동, 괴정을 방산 2리라 한다.

● **거산**(巨山)

동악산(252m) 서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큰산(동악산)을 등지고 있다 하여 거산이라 한다.

● **팔어실**(八魚室・八於室・芳日)

여덟 마리의 고기가 노니는 형국이라 하여 팔어실이라 하며 동국여지승람에 팔어곡부곡에서 팔어실이라고도 한다.

광서년간(1875~1908)에는 방일(芳日)이라고도 하였다. 방일과 거산을 합쳐 방산이라 한다.

● **육송정**(六松亭)

팔어실 북쪽 고석사 입구에 있는 마을로 경치가 좋고 소나무 정자가 좋다 하여 육송정이라 한다.

● **평동**(平洞)

옛날 고씨, 남씨가 사이좋게 살았다 하여 평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하며, 동국여지승람에 평장사(平章寺)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모아 동명과 절이름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 **괴정**(槐亭)

큰 괴목(느티나무)이 있었으므로 괴정 또는 괴동이라 한다. 서쪽 골짜기에 석남사지(石南寺址)에는 남파대사비(南坡大師碑)가 있다.

### 12) 산서리(山西里)

묘봉산 동남과 만리성산 동쪽으로 흐르는 계곡을 따라 새터, 서화마을이 있고, 감재산 북동쪽으로 월산마을이 있다.

이들 하천들은 동악산 서남족 망매(網梅)에서 만나 장기천으로 흐른다. 이 세 마을을 산서리라 한다.

● **새터**(新基)

최국원이라는 사람이 영덕으로부터 이곳에 새로 터전을 마련하였다 하여 새터라 한다. 최국원(崔國元)을 기리는 귀산제와 최학진(崔鶴榛)을 기리는 정효각이 있다.

● **서화**(瑞花), **서화실**(瑞花室)

산서리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매화나무에 얽힌 전설에서 상서로운 꽃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서화 또는 서화실이라 한다.

● **월산**(月山)

초승달이 산을 지나 다시 출현한다고 하여 함월산이라 하고, 그 골짜기를 음월곡이라 한다. 이에 연유하여 마을을 월산이라 한다.

### 13) 서촌리(西村里)

동악산 북쪽 망해봉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푸지산 기슭에 노곡동과 명촌, 장기읍성 내 서쪽 일부를 서부라하여 서촌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산으로 둘러싸여 농토가 적으며 노곡 앞 도로는 감포-포항간을 연결한다. 행정구역상 서부와 명촌은 1리이고, 노곡은 2리이다.

● **서부**(西部)

서부는 장기읍성내 서쪽 일부를 서부라 하였으며 지금도 동헌터, 창고터, 옥골, 저자거리(시장터), 여제당 등의 유적과 명칭이 남아 있다.

● **명촌**(明村)

옛 장기읍성 북쪽 바로 아래에 관속들이 많이 살아서 그들 마을을 높여 부른 이름에서 명촌이라 한다.

● **노곡**(蘆谷)

일명 기일(起日)이라고도 하며, 이 기일을 나누어 윗길, 아랫길이라고도 한다. 갈대가 많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노곡이라 하였다 하며, 해가 돋으면 제일 먼저 햇빛이 비쳐지는 곳이라 하여 기일이라고도 한다.

### 14) 금오리(金吾里)

망해봉 동북쪽으로 기울어진 곳에 창지리가 있고, 남으로는 서촌리, 그 가운데 동으로 흘러 내린 곳에 금곡이 있다. 서촌리 푸지산 지맥을 따라 동으로 가면 망월산이 있고 망월산 아래에 범오가 있다.

● **금곡**(金谷) · **쇠골 · 쉬골**

쇠가 많이 생산되었다 하여 쇠골이라 불렀다고 하며(쇠가 생산된 유적은 없음) 옛날 과거보러가는 선비가 지나가다가 쉬어 갔다고도 하여 쉬골이라고 한다.

● **범오**(凡吾) · **버밑 · 보밑**

범오라는 명칭에서 유래 했다고 하나 오히려 범오란 명칭이 있었기에 범오못(凡吾池)이라 칭하였을 것이다. 범오란 말의 뜻과 유래는 분명치 않다.

### 15) 대진리(大津里)

수양산 북쪽 지역 학곡천(灘川)하류에 동해와 맞닿은 곳에 대초전, 드망, 매진의 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으로 뻗은 31번 국도가 북으로는 구룡포, 남으로는 경주시 감포로 통한다.

● **대초전**(大哨田)

대추나무가 많다하여 조전(棗田), 또는 대초란 음을 빌어 대초(大草)라고도 표기하였으나 대초전(大哨田)의 오기인 듯하며, 일명 해어포(海禦浦)라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암리의 수영포와 더불어 수군만호진의 진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드망**

고기잡는 후리망을 많이 한다하여 붙여졌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 **매진**(梅津)

매화나무가 많아서 매진이라 하였으며 대초전과 매진을 병합하여 대진리라 하였다.

### 16) 모포리(牟浦里)

뇌성산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곳에 칠전마을이 있고 칠전마을 동쪽 동해의 돌출부에 형성된 마을이 모포리이다.

● **모포**(牟浦)

이곳은 어느 지역보다도 봄에 보리가 일찍 피는 포구라 하여 모포라고 하였고, 보리가 제일 먼저 되는 구석이라 하여 버리꾸지(包衣浦)라고도 하였으며, 바위가 동해로 돌출하여 구석을 만들고 있다하여 바우꾸지(巴衣浦)라고도 하였다.

● **칠전**(七田・漆田)

뇌성산 기슭에 7가지 보물(磊綠, 人蔘, 蜈蚣, 雉瀨, 蜂淸, 紫芝, 銅鐵)이 생산되는 곳이라 하며, 또 이 산에는 옻나무가 많다하여 칠전(漆田)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에 전해오는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87호인 모포줄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 17) 학계리(鶴溪里)

뇌성산 서남쪽에 위치한 열, 재필, 학잠 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 **열・얼개**(乙溪)

지금의 학계리의 중심마을로 신계천과 학곡천이 마주치는 여울이라 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다.

● **재필**(才必)

열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이 곳에 재피나무가 많아서 재필이라고도 하고, 이씨 집안에 재주 있는 분이 많이 태어나서 이곳에 태어나는 사람은 재주가 반드시 있다고 하여 그렇게 불렀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 **학잠**(鶴岑)

이 마을은 학계리의 입구가 되는 마을로 박사당 재라 불리는 고개밑 양지바른 자리에 위치한 마을이다.

### 18) 학곡리(鶴谷里)

투구산 동남쪽에 형성된 마을이 죽실이며, 남으로 내려오면서 형성된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 박실이다. 신계천과 마주치는 곳에 학삼마을이 있다.

● **박실**(朴谷)

죽실에서 흘러내리는 골짜기가 길고 마치 길죽한 박모양과 같다고하여 박곡, 박실이라 하였다고 하며, 박씨가 살던 곳이라 하여 박곡으로 불려졌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상류부터 차례로 웃박실(윗), 중간박실(박실), 아랫박실이라 한다.

● **학삼**(鶴三)

이 마을 북쪽의 산에 학 세 마리가 날아와 장군봉에서 놀았다하여 이 산을 학삼산이라 하고 마을도 학삼이라 하였다.

### 19) 신계리(新溪里)

대곡리 용수산에서 남으로 일 지맥이 내려오다가 등봉산과 장군봉(학삼산)을 이루는데 이 두 산 서쪽 기슭에 말골, 귀밑, 바위밑, 신덕이 있고 대곡에서 내려오는 신계천 남쪽에 솔밭밑 마을이 있다.

● **말골**(清谷)

마을의 지하수가 아주 맑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귀밑**(九溪)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마치 사람의 귀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들 한가운데 우물을 파고부터 마을이 쇠퇴하였다고 한다.

● **바위밑 · 호암**(虎岩)

옛날에는 창계, 청계라 부르기도 하였으나 범같이 생긴 바위아래라 하여 호암이라고도 한다.

● **신덕**(新德)

호암마을 동쪽으로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신덕이라 하였다.

● **솔밭밑**

신라 때는 큰 마을이었다고 하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다가 포항~감포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많이 살게 되었다.

### 20) 창지리(倉旨里)

망해봉 북동쪽에 옥녀봉이 우뚝 멈추고 그 동편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마을이다. 상정리 서남으로 기울어진 계곡으로 흐르는 신계천이 대곡을 거쳐 창지리 마을 동편으로 흐르고 있다.

상창, 중창, 서진마을을 창지 1리라 하고, 반금, 솔배기, 장재끝, 새밭골을 창지 2리라 한다.

● **상창(上倉)**

창지리의 중심마을이며 옛 봉산면의 소재지였다. 옛날 이 곳에 군량미를 저장하는 사창이 있었다고 하여 창지리라 불렀다고 한다.

● **서진(西陳)・선얍**

현재 장기초등학교 봉산 분교장(2009년 3월 1일 폐교됨)이 있는 마을로 산 옆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산옆'이라 하였으나, 음이 변하여 선얍으로 불린다.

● **반금(反琴・反今・返禽)**

옥녀봉 동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의 지형이 거문고를 엎어둔 것과 같다하여 반금(反琴)이라 부른다.

● **솔배기(솔매기)**

반금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이 등성이에 소나무가 많이 있던 두들(배기, 매기)이라 하여 솔배기, 또는 솔매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 **장재끝**

반금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지형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여 옥녀봉 또는 갖이봉은 머리이고, 반금은 허리 부분이고, 이 마을은 다리 부분인 정강이라 한다. 정강이의 끝부분에 해당된다고 장재끝이라 한다.

● **새밭골(新田谷)**

옥녀봉 서쪽 산등성이를 새로 개간하여 농토를 일구고 마을을 이루었다하여 새밭골이라 한다.

### 21) 대곡리(大谷里)

성적산 동편으로 흐르는 하천을 따라 대곡, 상대, 중대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용수산 동쪽 산기슭에 용수골이 있다. 상대골과 용수골을 합치면 매우 길고 넓다하여 대곡(大谷), 한실이라 한다.

● **대곡**(竹谷)
대나무가 많이 있다하여 죽곡이라 하였으며, 근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 **상대**(上大)
죽곡에서 흐르는 계곡과 지통곡의 계곡이 마주치는 곳에 남향으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이며 큰 골짜기에 위치한다 하여 한실(大谷)이라 한다.

● **중대**(中大)
정천리에서 흐르는 하천과 상대천이 흐르는 곳에 새들(대곡들)이 펼쳐지고 장기-포항 간 도로가 들판을 가로 지르고 있다.

● **용수곡**(龍水谷)
옛날 용이 살다가 등천을 하였는데 그 곳을 용소라 하고 용이 머물던 곳을 용굴이라 하고, 용이 등천한 산을 용립산, 또는 용수산이라 하는데, 마을 이름도 용수곡이라 부르게 되었다.

### 22) 죽정리(竹井里)

조항산 일지맥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투구산에 머무는데 그 산등성이에 형성된 마을이 상정리이며 투구산 남서로 기울어진 골짜기를 따라 중정리가 있고 남동쪽으로 기울어진 봉왕산 기슭에 죽실(竹實, 竹室)마을이 있다.

● **상정**(上井)
죽정리의 중심마을이며 지하수가 풍부하여 옛부터 물 좋은 곳으로 이름이 나 있다. 상정, 중정, 하정마을이 이어 있으나 하정마을은 정천리에 속한다.

● **중정**(中井)
임진왜란 당시 배씨, 이씨가 개척한 마을이다. 동제는 음력 정월 초에 제당목인 느티나무에 지낸다.

### 23) 정천리(井泉里)

정족산의 북동쪽으로 펼쳐진 참샘이, 장승배기, 퉁점을 정천 1리라 하고, 냉천을 지나는 하천과 죽정에서 흐르는 하천과 만나는 곳에 형성된 하정은 정천 2리에 속한다.

● **참샘이**(冷泉)

약물이 솟아나는 참샘이 있어 가뭄에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고친다고 하여 불리어진 이름이다.

● **퉁점**(銅店)

옛날 이곳에 구리쇠가 생산되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장승배기**

장기면과 오천읍의 경계인 세계원재에 위치한 마을로 옛날 장승이 있던 곳이라 한다.

● **하정**(下井)

원래 가마솥 형국이라 하여 정방이라 불렀으나 근년에 와 죽정리에 속하는 자연 부락인 상정, 중정 아래쪽에 위치하므로 하정이라 부른다.

## 7. 대보면

### 1) 강사리(江沙里)

서쪽으로 사지봉수대가 있던 봉오재(138m), 남쪽 다랫골천(구룡포읍 석병리)에서 경계를 이루며 다무포, 강금리, 새기, 송림촌 마을과 산촌 명월리가 있다.

● **다무포**(多無浦)

조선 말엽, 회산 감(甘) 씨가 정착하면서 외진 곳에 숲만 무성하고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뜻을 풍자하여 '다무포'라 했으며 또, 계곡어귀에 나무가 많다고 '다목포'(多木浦), '다목계'(多木溪)라 하였다. 고인돌의 전설과 장기목장의 말을 심사해서 출마시켰던 말심골(1982년. 강사저수지 수몰지구 협곡)이 있다. 외금강으로 불리는 만(灣)의 해안경관과 간이해수욕장, 고래를 테마로 한 '고래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있다. 매년 (음)9월 9일 신당에서 지씨 터주 신위에 제사를 지낸다.

● **강금리**(江琴里)

1750년 경, 회산 감(甘)씨와 충주 지(池)씨가 개척한 마을로 지형이 깽금이(깡깡이의

방언)와 같다하여 '계금', '강금', '깽금이'라 불리어 왔다. 또, 해안지형이 거문고와 비슷하다 하여 '거문고동'이라고도 하였다.

1973년 전국 우수 새마을로 선정되어 마을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새마을지도자는 국민훈장을 받았다. 제당은 포항시 민속신앙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음)10월 초순, 감씨 터주, 지씨 골매기 신위에 동제를 지낸다.

● **새기**(沙基)

1590년 경, 충주 지(池)씨와 달성 서(徐)씨가 '사지리'(沙只里)를 만들었다. 그 후 김해 김씨와 함께 마을을 형성하고 있을 때, 마을 앞에 있던 큰 모래더미란 뜻으로 부르던 사지(沙只)가 와전되어 '새기'라 부르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1981년부터 3년 주기로 호환(虎患)을 없애는 범굿을 행하는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행사이다. 약 370여년 수령의 곰솔(보호수 11-18-14호)이 있는 제당은 포항시 민속신앙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음)3월과 10월 초순, 년 2회 3성씨 골매기 신위에 동제를 지낸다.

● **송림촌**(松林村)

약 100여 년 전, 김봉주(金奉周)란 사람이 정착하여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해진다. 흑송림이 많아 '번디기 숲'이라고 불리어 오다 1950년 경 부터 '송림촌'이라 칭하였다. 1.2km 해안에 늘어선 어보림의 효과로 어족이 풍부하며 50년 수령의 곰솔군락과 매바위, 주상절리 등의 절경으로 해양 레저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자연유원지이다.

● **명월리**(明月里) · **절골**

1790년경, 단양 우(禹)씨와 곡강 배(裵)씨가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진 깊숙한 산골마을이지만 달이 떠도 산 그림자가 없는 마을이라 '명월리'라 하였다. 또, 신라시대 장기목장의 마필 번창과 국마 축원당으로 건립된 해봉사, 해달사 절이 있었다 하여 '절골'이라 하였다.

국마의 짐승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사(國祀)를 지내던 '제당'이 있었고 이곳을 '국사당골'이라 한다.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습이 해봉사에 머물며 남겼던 시구 '명월암(明月庵)으로 가는 길'이 전해오고 있다.

● **대보리**(大甫里)

남쪽으로는 강사리, 서쪽 봉화재(119m)에서 시작되는 벌내(甫川)의 서쪽 구만리와 경계를 이룬다. 한내(大川)와 번디기의 일부, 그리고 '장기벌내'가에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공공기관이 밀집한 대보면의 중심지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대천의 '대'자와 보천의 '보', 앞 자를 따서 '대보'라 칭하고 1, 2, 3리로 나뉜다.

● **한내**(大川)

1592년 경, 남평 문(文)씨와 김해 김(金)씨가 하천을 이용하여 농업을 이루면서 마을을 개척하였다. 한내 골에는 약 30년 주기로 대 홍수가 발생하였다 하여 조선 말엽부터 '대천'이라 불렀다. 이런 연유로 1973년 대보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대보들은 수리안전답으로 변했다. 한내 골에는 조선시대 충비 단량의 유래가 있는 집신골(集城谷)과 호랑이가 살았다는 범디미산이 있으며, 골짜기의 형상은 용트림, 저수지는 한반도 형상으로 터가 좋아 1998년 동호사가 창건됐다. 팔작지붕의 제당은 포항시 민속신앙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음)10월 1일 문씨 터주, 김씨 골매기 신위에 동제를 지낸다.

● **벌내 · 보천**(甫川)

1624년 경, 경주 최(崔)씨, 진양 하(河)씨, 남원 양씨가 개척한 마을로 '장기벌내'에 속한다. 3성비가 있는 제당은 포항시 민속신앙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음)10월 3일, 3성씨 골매기 신위에 동제를 지낸다. 조선시대(1650년) 나라에서 내린 가선대부 효자 하세만의 정효각(旌孝閣)과 하상천의 순효각(純孝閣)이 있으며 하씨 집성촌이다. 호미기맥(虎尾氣脈)의 고금산(122m)과 (舊名)장기갑등대는 일제탄압 100년의 풍파를 견뎌냈던 현장이다. 국립등대박물관, 해맞이광장, 상생의 손, 영원의 불, 연오랑 세오녀상, 새천년기념관 등이 어우러져 '호미곶 관광지'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 **불종골**

임진왜란 당시 마을에 불이나면 종을 울렸던 곳이라 하여 '불종골'이라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소방용 종각이 있어 일명 '종로'라고도 했는데 지금의 대보교회가 있는 자리이다. 약 200년 전, 이성용 선비가 '신동'이라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장기벌내, 근대의 대보 2리에 속했으나 1942년 행정구역 개편 시 대보 3리로 분동(分洞)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촌계도 공동이며 동제도 함께 지내고 있다.

### 2) 구만리(九萬里)

호미곶의 끝자락에 해당하며 장곡봉수대(獐谷烽遂臺)가 있었던 봉화봉(130m)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대 농경사회를 이룬 구만들은 포항시 '유물산포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한국문인협회포항지부 회원들의 '보리누름'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영일군 동해면에 속하다 1942년 구룡포읍(1945, 대보출장소)에 편입, 구만 1, 2리로 나뉜다.

● **보내 · 벌내 · 보천**(甫川)

보천의 북쪽어귀에 형성된 마을로 '영일벌내'에 속한다. 예부터 서당이 있었고 1924년 보명사립학교, 1939년 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으며 현, 대보초등학교가 있는

교육의 중심지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대보항의 어업기지로 정어리 기름공장이 많았으며 북방파제가 있다. 수령 300년의 당산목이 있는 갈마천 제당은 포항시 민속신앙 유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음)11월 초순, 김해 김씨 터주와 '정족' 마을 개척자인 망씨 골매기 신위에 합동으로 동제를 지낸다. 교석초(橋石礁)의 전설에 따라 어선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내오다가 약 100년 전부터는 3년마다 '다리돌굿'을 한다.

● **정족(鼎足) · 솥발이개**

1590년 경, 망씨 부인이 일으킨 마을로 농촌 부엌에 있는 솥(鼎)같이 생긴 지형의 발(足)부분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정족'으로 불렀다.

● **웅굴개**

솥발이개 북쪽 해안에 있었던 작은 마을로 전설이 서린 웅굴('우물'의 사투리)이 있어 사투리로 '웅굴개'라 하였다.

● **큰개**

웅굴개 북쪽 해안마을로 계곡 및 구릉의 차가 크므로 '큰개'라 불렀다. 풍랑과 유속이 심한 교석초(橋石礁)에는 마고 할멈의 전설이 있으며 갑신정변(1884년)으로 능지처참된 김옥균의 왼팔이 수장된 곳이다.

● **까꾸리개 · 구포(鈎浦)**

해안에는 풍파가 심해서 고기(청어)가 자주 밀려 나오는데 까꾸리('갈고리'의 사투리)로 끌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안 낭시 끝에는 일제침략의 흔적인 쾌응환조난기념비(快鷹丸遭難記念碑)가 있다. 주변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악어, 물개, 거북이로 변하는 변신바위와 독수리바위의 전설이 있으며 영일만의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다.

● **앞구만 · 부느리개(芬月浦)**

곶(串)의 서편마을을 '앞구만'이라 하며 낙조(落潮)와 기암절벽한 창파포구에 명월휘요한 경치가 장관이라 하여 '분월포' 또는 '부느리개'라 불렀다.

● **신동**

19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큰 마을 남쪽에 새집들이 들어서면서 '신동'이라 부르고 있다.

● **구만리 · 섭슬골**

고대 선인들이 오래전부터 살았던 곳으로 추측되나 조선말엽인 1890년 경, 경주 이씨와 김씨가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범꼬리 부위 지형이 굽이친 곳, 거북

이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라 하여 '龜滿', 구릉지가 많다는 '丘滿'이라 불렀다 하기도 하고, 계유정란(1452년) 때 황보인의 충복 단량(丹良)이 황보인의 손자 서(瑞)를 항아리 속에 넣어 도망가다 이곳에 이르러 보니 앞에는 바다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만 가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한다는 등 다양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섭슬끝의 처녀가 시집갈 때 까지 백미 3말을 못 먹고 간다'는 목장보슬말(牧場涉瑟末)의 유래가 있어 '섭슬골'이라고도 한다. 돌배기 제당은 포항시 민속신앙유적②(남구005 마-1)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음력)10월 10일, 이씨 터전, 김씨 골매기 신위에 동제를 지낸다.

### 3) 대동배리(大冬背里)

영일만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대동배'와 '정천'이 있다. 학달비 산(149m)의 유래와 '구룡소'의 전설, 그리고 '학달비 팔경'의 풍광이 있다.

● **학달비 · 대동배(大冬背)**

신라시대에는 '동을배곶'(冬乙背串)이라 칭하여 봉수대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1664년 경, 조정의 관리인 김상구(호 : 이필)가 이곳에 정착하여 작시한 동해순토학달비(東海舜土鶴達飛)라는 시구에 연유하여 '학달비'라 하였다. 또, 1679년 경, 박현섭 어부가 마을 뒷산이 달비 같다 하여 '한달비'(大達飛)라 칭해오다가 1914년 '대동배'로 통칭했다. 여름에는 천연기념물 제371호로 지정된 모감주나무에 꽃이 만발하면 마치 황금비가 내리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며, 노암식수(露岩植樹), 구룡소(沼) 등의 명승지가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돈이 흔해 개가 지화(紙貨)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생겼던 부촌으로 일본 유학생이 많았다. 매년 (음)10월 3일 웅굴골에서 밀양 박씨 터전 신위에 동제를 지낸다.

• **장천(長川) · 정천(淨川)**

250여 년 전, 원주 원씨, 제주 고씨, 달성 서씨가 들어와서 마을을 형성하였다. 장곡(노루골)에서 흘러내리는 긴 하천의 이름에 연유하며 '장천' 또는 '장내'라 하였다. 또한, 양지(흥해쪽)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 물을 길어 가기도 했는데 물맛이 좋아 '정천'이라고도 하다가 1914년 '대동배'로 통칭했다. 해안 갯바위에 쌓인 갈매기 분이 백옥 같아 붙여진 옥바위(玉岩), 땅버들, 해당화가 자생하는 기암절벽의 풍광이 절경이다. 약 300년 수령의 팽나무 제당은 포항시 민속신앙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음)9월 초순, 원씨 터주, 고씨 골매기 신위에 동제를 지낸다. 약 100년 전부터는 동제 때 풍어제(격년제)도 함께 지낸다.